

미래의 희망 로스쿨
LawSCHOOL 차오

2018. SEP + OCT



09/10



- KNU 강원대학교
- 전국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고려대학교
- 동아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서강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아주대학교
- 연세대학교
- 영남대학교
- 원광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하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경계주대학교
- CAU 중앙대학교
- 충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양대학교

● prologue

내가 계속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일을 찾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듯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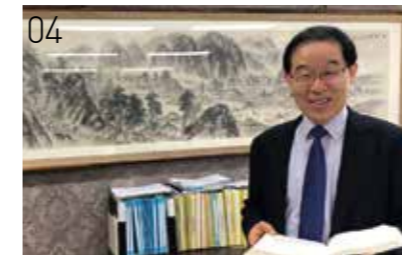
- 스티브 잡스 Steve Jobs

I'm convinced that the only thing that kept me
going was that I loved what I did.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And that is as true for your work as it is for your lovers.

LawSCHOOL 창

미래의 희망 로스쿨

2018
09 + 10



발행일 2018년 9월
등록번호 2289-0262
발행인 이형규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대리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인 편집회사 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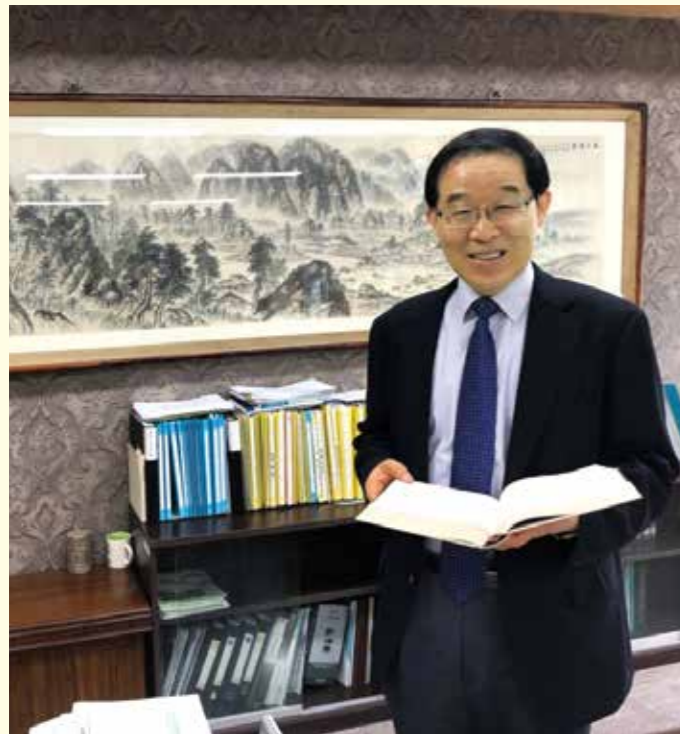
<로스쿨 창>에서는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showe@leet.or.kr

- 04 로스쿨 탐방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순석 원장
- 08 파워 인터뷰
양희원 변호사
- 12 로스쿨 찾기
- 16 SPECIAL REPORT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
- 18 특별기고
법무법인 덕수 신하나 변호사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4 로스쿨 특파원
- 31 BOOK
- 32 로스쿨 오피니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용 교수
- 39 행복 로스쿨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김지우 학생
- 42 로스쿨 생활백서
동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 46 언론 속 로스쿨
- 48 책 읽어주는 변호사
- 52 문화가 산책
- 54 건강멘토링
- 57 협의회 소식
- 58 OUT CAMPUS / LAW QUIZ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순석 원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진 유능한 법률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찬연히 빛나는 5.18 민중항쟁이 시작된 곳, 광주. 그 중심에서 법조인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 잡은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그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 역량과 지성의 리더십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우수한 법조인을 배출하는 비결에 대해 들었다. editor. 박소희



약 력

- 전공 상법
- 학 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L.M.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경 력 美 뉴욕주 변호사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위원장

Q.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남대학교 로스쿨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요?

A. 전남대 로스쿨은 올해 발표된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 95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여, 1회부터 7회까지 누적 총 624명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624명이라는 합격자 수는 전국 25개 로스쿨 중 5위이며 지방국립대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법학적 성시험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수도권 로스쿨에 지원하는 경향을 감안하면 주목할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남대 로스쿨은 호남 지역 우수 법조인 양성의 요람인 ‘전남대 법과대학’의 명성을 이어받아, 전문분야의 실무경험과 연구경력을 갖춘 교수진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지도교수제 운영을 통해 재판연구원(총 30명) 및 검사(총 5명) 임용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남대학교 로스쿨은 특성화 분야인 “공익·인권법” 분야와 관련하여 공익인권법센터와 리걸클리닉센터를 통해 재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전남대학교 로스쿨의 교육철학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전남대학교 로스쿨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배출한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진리, 창조, 봉사라는 전남대학교 교시에 맞추어, 법학교육의 목표를 ‘전문분야를 개척하는 세계적 수준의 정의로운 법률가를 양성’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확고한 윤리관을 가진 법률가, 충실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지닌 법률가, 사회와 소통하는 국제적 수준의 법률가를 육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Q. 전남대 로스쿨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우리 로스쿨은 지역사회의 역사적·문화적 특성과 시대적 요청 및 대학의 교육이념과 역량을 토대로 공익·인권법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남대학교는 법과대학 시절부터 법률상담소를 운영하며, 학생들과 교직원, 주민들을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로스쿨 개원 이후에는 법률상담소의 이러한 역할을 리걸클리닉센터에서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걸클리닉 센터에서는 법조실무경험을 갖춘 교수님들의 지도와 책임 아래 대면 및 서면을 통한 법률상담과 공익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걸클리닉센터와 MOU를 체결한 지역사회단체(YMCA시민중계실,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광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법률봉사동아리인 「서로」와 함께 연간 50건 이상의 무료법률상담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소송을 매년 5건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소송 활동의 경우 광주 지역의 장애인, 이주노동자, 유학생과 같이 소외된 약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도 소송 수행 과정에 참여하면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경

Q. 전남대학교 로스쿨 ‘공익인권법센터’는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 공익인권법센터는 공익인권법 분야의 연구 및 교육을 통하여 공익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6년 6월 설립되어, 같은 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연구교육을 위한 MOU를 제1호로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교원 대상 인권연수, 공익인권 관련 학술행사, 인권 관련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2회(2월, 8월) “인권법평론”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18 진상규명특별법 제정과 남은 과제들”이라는 주제로 2018 공익인권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광주광역시에서 제·개정되는 조례(안)(시행규칙 등 포함)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하여 무료로, 9월 4일부터 다양한 주제의 인권전문가를 초빙하여 “함께하는 시민 인권강좌”(12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스쿨은 공익인권법센터 외에도 법학연구소 산하에 동아시아법센터, 보건의료법센터, 신탁산업법센터 등 10개의 전문분야 센터를 운영하며 다양한 학술행사 및 세미나 개최,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Q. 법률시장 개방으로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 진출을 꿈꾸는 로스쿨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 전남대 로스쿨은 미국 캔사스 로스쿨, 일본 게이오 로스쿨, 러시아 YANG ASSOCIATES, 미국 Nelson Mullins 등 해외대학 및 법무법인과의 교류협정을 체결해, 학생들이 해외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교류학생으로 장기간 해외 경험을 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법무법원에서 실무경험을 쌓는 2~3주 프로그램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Nelson Mullins에는 매년 2명~4명 정도가 다녀오고 있으며, 독일, 일본, 중국의 현지 법률사무소에 실무수습을 다녀오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Q. 25개 로스쿨에서는 법률에 의거하여 등록금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로스쿨의 장학 제도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A. 전남대 로스쿨에서는 교내 장학금, 발전기금 장학금, 국고지원금 장학금, 교외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재원을 마련해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스쿨의 등록금은 다른 로스쿨에 비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등록금 부담이 비교적 낮습니다. 또한, 전액장학금, 반액장학금, 수업료면제 등 수혜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성적우수 장학금 이외에 가계곤란자 지원을 위한 이원적 장학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Q. 학생들의 진로를 위한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A. 학생들이 개인 특성에 맞는 학습을 하고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지도 교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1:1 개별 면담과 집단면담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면서 학교생활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돕고 있고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 및 취업 지도를 위한 학생지도센터를 운영해서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부합하는 취업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해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하는 법조인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대 로스쿨은 국내 유수의 대형로펌 및 해외로펌, 국내 유망기업, 국가기관 등과도 협약을 체결해 현장실습 후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야경



전남대학교 전경

Q. 매년 정기적으로 3개 거점국립대학교 연합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논의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상호 연대와 정보 공유를 위해 연합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지만 올해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연합 학술대회에서는 주로 로스쿨의 운영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변호사시험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의, 로스쿨 평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논의 등의 주제로 의견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교수님들이 발제를 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정보 교류를 비롯해 지방 로스쿨로서의 발전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Q. 지방에 위치한 로스쿨로서 느끼는 고충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A.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로 인해 지방 로스쿨만 지역 소재 대학 졸업자를 선발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신입생 모집인원 중 일정비율(10~20%) 이상을 지방 소재 대학 졸업생으로 선발해야 하는데 수도권 로스쿨에는 없는 의무를 떠안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도권 로스쿨이 지방대학 출신의 지원자를 일정비율 선발하는 것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로스쿨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지방대 로스쿨에 대한 선입견 내지 편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스쿨은 입학정원 120명인 대규모 로스쿨로서 변호사시험 관련 교과목은 물론이고 다양한 선택과목이 설강되어 관심분야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시험TFT의 특강 및 모의시험 등을 통해 변호사시험 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에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로스쿨에 입학한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Q. 일각에서는 법률시장의 포화를 근거로 '로스쿨 통폐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A. 로스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은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하여 출범하였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로스쿨 통폐합을 주장하는 것은 변호사 배출 인력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서비스의 사회 전반으로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주장은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로스쿨 제도를 통해 졸업생을 배출한 것이 7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로스쿨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Q. 지난 8월, 법무부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사법연수원 교육 의무화를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요?

A. 사법연수원 교육 의무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은 로스쿨 졸업생이 실무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사법연수원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로스쿨 교육과정 중에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을 두어 실무경험을 쌓도록 하고 있으며, 변호사시험 합격 후에도 실제로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현 시점에서 사법연수원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대한변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수를 사법연수원에서 대신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선택지로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2019학년도 입학전형이 진행 중인데요. 마지막으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전남대 로스쿨은 학생들의 교육을 향한 교수진의 열정이 그 어느 법전문대학보다 높고 실무경력 교수의 비율이 높아 내실 있는 실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인권, 기업법무 등 특성화 교육을 위한 지원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에 소재한 로펌이나 법률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남대 로스쿨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진 유능한 법률가를 양성함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전남대 로스쿨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쳐나가길 기대합니다. [▶](#)

기회가 된다면 미국 로펌에서 '한국 변호사'가 아닌 '미국 변호사'로서 활동해보고 싶어

양희원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한동안 국내 기업의 사내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 후 미국 뉴욕대학교 로스쿨(NYU School of Law)에 입학해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며, 미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에 전념했다. 지난 7월,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마친 양희원 변호사에게 뉴욕에서의 생활에 대해 들어보았다. editor. 박소희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Q.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진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법과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법학을 계속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는데요. 공부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무경험이 학문연구에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무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기존의 학문을 폭넓게 이해할 수 없고, 또 기존의 연구에 새로운 문제점이나 시각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로스쿨의 경우 실무에 진출하기까지의 과정이 기존의 교육체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또 교육과정 중 실무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진학을 결심하였습니다.

Q.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에서 보낸 3년의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재학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A. '기회'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로스쿨에 다니는 3년 동안 저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기업법무학회를 창립해 동기들과 기업법무를 공부해보고자 한다고 하였더니 지도교수님께서 여러 로펌의 변호사님들과 연결해주셨고 덕분에 영문계약서 검토, M&A 거래의 분석 및 검토 등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무에 나온 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당시 저희에게 무상으로(!) 가까이 시간을 내주셨던 분들이 모두 각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분들이셨습니다. 당시 받았던 교육은 실무에 나와 있는 지금도 다시 듣고 싶을 만큼 큰 도움이 되고 있

개인적으로 미국 변호사 자격의 취득이 특정 변호사의 업무처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해외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많은 경우 미국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도 있고, 일하는 과정에서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NYU(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전경

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단체의 일을 도와드리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실무를 경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 UNCITRAL의 도산법 실무회의 준비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본회의에까지 참여하는 좋은 기회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실무회의장이시던 교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무리하여 기회를 마련해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로스쿨 생활을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졸업 후 일을 하면서 놀랐던 점은, 로스쿨 재학 시절 학회 활동이나 학교에서 진행된 여러 외부 교육 등을 통해 보였던 변호사님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학생 때 이러한 인연이 있었다고 설명하면 다들 깜짝 놀라면서 좋아하셨습니다(웃음). 이런 인연이 일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두말 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학생 때 뵈 변호사님들은 저와 무관한 분들이라고 생각해 개인적인 연락을 취하거나 연을 맺으려 노력하지 않았었는데, 후배님들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변호사시험 합격에 대한 부담감으로 로스쿨 교육과정 중 실무 과목이나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의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어렵겠지만, 변호사시험 후를 생각해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의 수업은 꼭 수강해두기를 바랍니다. 저는 3학년 1학기에 'Corporate Governance'라는 수업을 고민 끝에 신청하여 수강하였는데, 당시 수강했던 과목이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많은 도움이 되어 수강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한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나요?

A.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첫 1년간은 대한의사협회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 3년 반 동안은 SK가스(주)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주로 소송전략 등을 연구하였습니다. SK가스(주)에서는 해외법무를 많이 담당하였는데, 해외 파트너사들과의 JV 설립 및 신설회사의 운영을 주로 지원하였고, 프로젝트 건설 및 운영, 가스 트레이딩, 해외 지사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 경험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사내 변호사라는 지위를 통해 상대방 회사와의 딜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내변호사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내변호사의 경우 로펌에 비해 선배 변호사들에게 트레이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반면, 처음부터 업무에 직접 부딪쳐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단독으로 맡았던 회사 투자 계약의 규모가 60억이었는데, 팀장님께서 큰 규모의 딜이 아니니 혼자 해보라고 하셨을 때의 놀라움과 부담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웃음). 미국과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나라에서 상대방과 직접 협상해본 경험은 회사 근무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Q. 뉴욕 대학교(NYU School of Law) 로스쿨 입학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개인 사정으로 미국에서 생활하게 되어 LL.M. 진학을 계획하였습니다. 미국 파트너사와 일 하면서 여러 미국 변호사들과 업무를 함께 했는데, 그때 미국 로스쿨을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NYU School of Law의 경우 다른 학교들과 달리 LL.M. 과정이 전공별로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마음에 들어 지원하였고, 다행히 합격하여 Corporations LL.M. 과정을 졸업하였습니다. (특화된 전공의 LL.M.을 할 경우 그 전공 외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고민을 많이 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Q.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또 미국의 다양한 주(州) 중에서도 뉴욕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A. 한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의 경우, 개인적으로 미국 변호사 자격의 취득이 특정 변호사의 업무처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웃음). 다만, 해외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많은 경우 미국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도 있고, 일하는 과정에서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거래 시 미국 변호사 참여가 의무적인 경우 등)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LL.M. 과정생들 중 한국인들의 경우 대부분 시험 응시를 하지만, 타국의 변호사 학생들의 경우 시험 응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주들 중 외국인에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곳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허용되는 주들 중 가장 대도시가 있는 곳이 뉴욕주이고, NYU 로스쿨을 졸업했기 때문에 시험 응시 요건 충족이 쉬워 뉴욕주에 시험 등록을 하였습니다. 서부

에서 활동할 계획이 아닌 이상 뉴욕주에서 취득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Q. 지난 7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치르셨는데요. 한국과 미국 두 국가의 변호사시험 경험자로서 두 시험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A. 일단 합격률의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JD 학생들(저희와 같이 로스쿨 3년 과정을 겪은 미국 학생들)이 초시를 치르게 되는 7월 시험의 합격률은 70%대입니다. 80%대였던 과거에 비해 조금 낮아진 했지만, 한국의 변호사시험 합격률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더 큰,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짧은 준비기간입니다. 일반적인 학생의 경우, 3학년 기말고사 및 졸업식이 끝난 직후부터 시험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5월 말입니다. 시험은 7월 말이고요, 딱 채워 공부한다고 해도 두 달밖에 되지 않는 수험기간인데, 로스쿨 과정을 충실히 따른 학생이라면 그 두 달이면 합격에 충분하다고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언어 장벽으로 인해 합격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활기가 넘치는 NYU(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캠퍼스의 모습



Q. 뉴욕주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A. 시험 준비기간이 짧았던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상태로 시작해 다른 나라의 법 총 14과목을 두 달 만에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태로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 과제인데, 이 과정이 굉장한 스트레스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양을 단기간에 익혀야 하는데서 오는 압박이 가장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변호사 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는 저와 같은 학교에서 공부한 다른 변호사님들도 모두 동의한 부분인데요, 학기 중에는 귀하게 얻는 유학 생활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것을 얻는 길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로인해 수험기간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요(웃음). 한국에 비하면 너무 적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 같아 염치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조심스레 바라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 로스쿨 재학생 중에서도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 시 어떤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나요?

A. 가장 먼저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적이 미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이라면 한국에서도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 그 자체보다는 미국에서의 로스쿨 생활 경험 후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Q.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인가요?

A. 기회가 된다면 미국 로펌에서 한국 변호사로서가 아닌 미국 변호사로서 활동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 기회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현지에 한국인 교포 출신의 미국 변호사들이 많이 있어 한국 변호사의 경우 기존 로펌과의 관계를 통한 파견 변호사 생활을 짧게 몇 개월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지위나 자리를 막론하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해보는 것이 현재 꿈입니다.

Q. 현재 육아와 공부를 병행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없나요?

A. 어려운 점이 상당합니다(웃음). LL.M. 과정 중 '아빠 학생'은 많은데 '엄마 학생'은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지만 그보다 물리적인 시간과 여유가 부족해 학교생활을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기를 데리고도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웃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Q. 어떤 모습의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요?

A. 외국 파트너사와의 중요한 거래 협상 중 한국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님과, 외국 로펌의 미국 변호사님이 영어로 협상을 하는 자리에 함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게 발언하시던 분은 한국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님이셨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와 '실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계기였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도 자신 있게 제 입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형법 전공) 중에 있는데, 기업형법을 전공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늘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해 배움을 갈구하는 편인데요. 향후에 제 실력이 많이 쌓인 후에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서 보고 싶습니다. **창**

2019학년도 공동입학설명회 성황리에 개최



2019학년도 공동입학설명회에 참가한 수험생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지난 8월 29일(수)~30일(목) 양일간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는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가 개최됐다.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는 법전문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25개교 법전문원을 홍보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매년 주최하는 행사이다. 지난 7월 15일(일) 시행된 법학적성시험(LEET)에 역대 최다 인원인 9,740명이 응시하면서 이번 공동입학설명회 또한 문전성시가 예고된 바 있었다. 실제로 이들 동안 약 4,000명의 수험생이 참여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공동입학설명회 첫째 날 오전 11시에 진행된 개막식에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신연수 법률신문 총무국장,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등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이 함께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25개 법전문원의 개별 상담 부스가 마련되었으며, 상담 부스마다 1:1 상담을 받으려는 학생과 학부모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학생들은 주로 자신의 점수(법학적성시험, 어학성적 등)가 합격권인지, 부족하다면 어떤 점을 보강해야 하는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상담 부스에는 각 법전문원의 원장을 비롯해 교수, 입학 담당자와 행정실 선생님들이 총 동원되어 상담이 이루어졌다.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및 내빈들이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의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해 수험생들에게 대기표를 배부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 개막인사 중 발췌



“지난 2016년 사립대 로스쿨 등록금을 15% 인하하고, 국립대 로스쿨 등록금을 5년간 동결, 현재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25개 법전문원은 등록금 총액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전체 장학금의 70% 이상을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에는 전국 로스쿨 재학생 6,00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분위에 해당되는 1,019명의 학생들이 등록금 전액을 감면 받고, 부분 장학금 수혜자까지 합하면 전체 재학생의 70% 이상이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입시부터는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특별전형 제도를 입학자의 5%에서 7%로 확대되었습니다.”

올해도 학교별 상담부스와 나란히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의 부스도 마련됐으며, 총 6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위해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면접 노하우 등을 전수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수험생 김영은(30)씨는 “넘쳐나는 법전문 입학 정보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정보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었는데, 공동입학설명회에 참석하게 돼 원하던 정보를 얻게 되었다”며 참석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수험생 김재형(27)씨는 “25개 법전문이 한 곳에 모여 있어 개별 법전문 설명회를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점이 좋았다. 외국 유학생이라 입시 정보를 얻을 길이 막막했는데, 어느 정도의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전했다.

25개 법전문원은 10월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면접전형(11월)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된 수험생들은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으로 내년 3월부터 법학도의 길을 걷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포함해 교수, 입시 담당자들이 학생과 1:1 상담을 하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후배들을 위해 상담을 하고 있다.

2018년도 제9회 법조윤리시험 시행

지난 8월 4일(토) 2018년도 제9회 법조윤리시험이 시행되었다. 이번 법조윤리시험에 지원한 학생은 총 2,892명으로 전년도 지원자 2,047명에 비하면 약 41.3%나 증가한 수치다. 응시생이 갑자기 대폭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법조윤리시험의 탈락자가 역대 시험 중 가장 많아, 이들이 대거 몰려 빚어진 현상으로 분석된다. 법조윤리시험의 첫째 합격률은 99.4%에 달했지만, 매년 급락을 거듭하다 지난 시험(제8회)에는 합격률이 59.4%까지 떨어졌다. 제9회 법조윤리시험의 결과 발표는 오는 9월 19일에 예정되어 있다.

공 고 통
법무위원회 제2018-002호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윤리시험 실시 장소 및 응시자격에 관한 공고
2018년 8월 4일(토) 2018년도 제9회 법조윤리시험 실시 장소 및 응시자격에 관한 공고
법무위원회
2018년 8월 4일

구분	내용	비고
1. 시험일자	2018. 8. 4(토)	
2. 시험장소 및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윤리시험 실시 장소 및 응시자격에 관한 공고	
3. 시험방법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윤리시험 실시 장소 및 응시자격에 관한 공고	
4. 시험비용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윤리시험 실시 장소 및 응시자격에 관한 공고	
5. 시험결과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윤리시험 실시 장소 및 응시자격에 관한 공고	
6. 기타사항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윤리시험 실시 장소 및 응시자격에 관한 공고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최우수상 고려대학교 법전원팀

지난 8월 25일(토)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됐다. 이 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법조 실무 교육효과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노동법, 특히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한 노동자에게 제기되는 손해 배상 및 가압류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경연대회다. 서면심사 결과 상위 8개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파업과 집회에 대한 국가손배'라는 주제로 대회가 진행됐다. 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고려대학교 법전원팀(이다솜, 최경진, 임인영)이, 우수상은 이화여자대학교 법전원팀(곽은별, 민수정, 이예지)이 수상했다.



서울대학교, 충북대학교 법전원 특허소송변론 경연대회 우승

지난 8월 27일(월) 특허법원에서는 제5회 특허소송변론 경연대회가 열렸다. 준비서면을 제출한 35개팀 중에서 본선에 진출한 24개팀이 본선을 거쳤고, 특허부문에서 8개팀, 상표부문에서 4개팀을 선발했다. 대회는 특허법원 판사들과 특허심판원 심판관들에 의해 출제된 특허소송 및 상표소송의 각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변론을 위한 준비서면을 사전에 작성·제출하고, 본선 당일 재판부에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상대방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변론 경연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회 결과 특허부문 1등상은 서울대학교 법전원팀이, 상표 부문 1등상은 충북대학교 법전원팀이 수상했다.



제3회 국민권익위원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

지난 8월 30일(목),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제3회 국민권익위원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의 본선이 개최됐다. 본선에는 예선을 통과한 6개 법전원 8개팀(56명)이 참가했다. 본선은 서면 심사 30%, 경연 심사가 70% 반영되었으며, 치열한 경연 끝에 서울대학교 법전원 '동행'팀이 대상(국민권익위원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대한변호사협회장상,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상,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상, 법률신문사 사장상)은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충남대학교, 경북대학교 법전원팀이 수상했다.



제1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려

재단법인 동천과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는 지난 8월 24일(금) 변호사회관에서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통일에 대비한 법 정책 발굴과 남북협력 및 교류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남북교류 협력, 통일 이후의 남북통합, 북한이탈주민 지원, 북한인권 등 다양한 연구주제가 제안됐다. 최종심사에는 총 6팀이 참가했으며,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교류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 연구'를 발표한 김규성, 정다혜 학생(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을, '남북한 서신왕래 현실화 방안 연구'를 발표한 금성호 학생(서울대 일반대학원)이 동천 이사장상을 각 수상했다.



제8회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축구대회 성균관대 법전원 우승 차지해

8월 11일(토)~12일(일)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축구센터에서는 전국 법전원 재학생 및 졸업생 500여 명이 참여한 제8회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축구대회가 열렸다. 원광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법전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는 성균관대 법전원팀이 우승을, 서울대 법전원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연세대 법전원팀은 3위를 기록했으며, 서강대 법전원팀은 2년 연속 4강에 진출하는 활약을 보여주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 지방인재선발 제도의 안착에 힘써야 한다.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조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에 해당하는 법학적성시험이 지난 7월 15일(일)에 전국 9개 지구 16개 고사장에서 실시됐다.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9,740명이 응시하여 법학적성시험이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으로 기록됐다. 응시생의 증가는 사법시험의 폐지, 취업난으로 인한 전문직 선호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에 대한 입시생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지만, 각 로스쿨은 신입생 선발 등에 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법무부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한 이후 로스쿨간의 서열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절반도 안 되어 재학생들도 우선 변호사시험의 합격에 몰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로스쿨 교육에서 변시과목 이외의 특성화과목이나 선택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격화되고 있다. 로스쿨 학생들이 단순히 변호사시험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법조인을 양성하려던 법전원의 도입 취지는 사라져버렸다.

내년도 신입생부터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취약계층 선발을 기존 입학정원의 5%에서 7%로 확대하라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매년 130여 명 가량 선발되던 특별전형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다. 로스쿨 도입 이후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된 인원은 1,309명에 달하지만, 이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체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평균에 크게 밀리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로 특별전형을 통하여 입학한 학생이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과 같은 교육을 받고 응시자의 절반도 합격되지 않는 변호사시험에서 합격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특별전형으로 입학하기 수월한 지방 소재 로스쿨의 경우에 특별전형 입학생이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



지방인재 선발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중국적으로 낙오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그 뿐만 아니라 합격률 공개로 학교별 서열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변시합격률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지역인재 선발의무화는 지방 소재 로스쿨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하여 특별전형으로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문호를 넓혔지만, 변호사시험의 낮은 합격률로 인해 이들에게 더 큰 아픔을 주는 것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지방소재 로스쿨은 특별전형 입학생들의 낮은 변시합격률과 함께 또 하나의 큰 고민거리를 안고 있다. 「지방대학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을 의무적으로 입학정원의 20%를 선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지방 소재 로스쿨은 변호사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에서 수도권 로스쿨과 비교해 절반 내지 1/3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지방 소재 로스쿨의 합격률 하락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역인재쿼터제도를 들 수 있다.

로스쿨의 신입생 선발에서 일반전형과 구별하여 지역인재를 선발하도록 한 것은 양자간의 차이를 인정했기 때문이며, 그 차이는 고스란히 합격률로 이어진다. 올해 지방의 어느 로스쿨에서는 지역인재 선발로 입학했던 변시 응시자 14명 중 1명이 합격했고 또 다른 로스쿨에서는 지역인재 선발로 입학했던 변시 응시자 13명 중 1명이 합격했다는 소문이다. 입구만 열어주고 출구를 그대로 두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은 뻔한 이치이다. 지방인재 선발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중국적으로 낙오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그 뿐만 아니라 합격률 공개로 학교별 서열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변시합격률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지역인재 선발의무화는 지방 소재 로스쿨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의과대학의 경우 법전원과 같이 「지방대학육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만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95%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법전원의 지역인재 선발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로스쿨을 둘러싼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현재 로스쿨이 직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는 로스쿨 도입 시에 법무부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겠다고 한 것을 도외시하고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하는 데 기인한다.

로스쿨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로스쿨에 관한 업무와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분산되어 있고, 기관마다 입장이 각각 다르다. 로스쿨의 입학관련 정책은 '교육부'가, 평가는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법무부'가 하는데, 입학과 평가 그리고 변호사시험의 주관기관이 일치하지 않아 엇박자를 내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가능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특별전형과 지방인재선발을 확대·강화하며,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변시합격률을 낮추고, 대한변협은 이러한 상황의 고려 없이 합격률이 낮은 지방 로스쿨 통제함을 외쳐대고 있으니 말이다. 이제라도 로스쿨을 관장하는 행정기관들이 협력하여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의 로스쿨을 안착시킬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 **창**

LAW





변호사가 되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법무법인 덕수
신하나 변호사

지난 4월말,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 작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날이 생각났다. 입술이 타들어가던 작년 그때의 느낌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합격자 발표가 나고, 몇 명의 후배와 동기로부터 합격 소식이 들려왔다.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들이 걱정되었지만, 선뜻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다. 합격률이 50%가 되지 않는 시험, 이제 변호사시험은 누구라도 떨어질 수 있는 시험이 되었다.

합격자 발표가 난지 며칠 되지 않아, 학교별 합격률이 공개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은 당일 학교별 합격률 발표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 학교별 합격률은 주변 지인들과의 대화에서도 자주 오르내리는 주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렇다. 합격률이 높은 학교에 주목하지 않고 합격률이 낮은 학교에 주목한다. 또다시 로스쿨제도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그 정당성을 의심받는다.

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변호사'이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존하던 시대에 졸업한 로스쿨 변호사로서, 나는 로스쿨 제도에 대한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조금 미묘하다. '로스쿨 졸업생'으로서와 '변호사'로서의 입장이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쟁점은 '합격률 문제'와 소위 '5탈자'라고 불리는 '5회 응시제한' 규정이다. 대한변협으로 대표되는 기성법조인들의 입장은 분명하다. "신규변호사 수를 줄여야 한

다."는 것이다. 그 방식이 로스쿨 정원제한인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제한인지에 따른 방식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변호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 이유 역시 명확하다. 법조 시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과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은 정 반대의 입장으로, 변호사 시험의 자격시험화와 합격률 정상화(합격률 상승)을 주장한다. 입학정원 제한이나 로스쿨 통폐합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거칠게 표현하면, 변호사 수가 줄어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한 번, 작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날이 떠오른다. 작년에도 대한변협은 합격자 발표 직전에 성명을 발표하였다. 1,500여명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정한 것이 너무 높다는 취지의 규탄성명으로 기억한다. 50%의 합격률, 마치 내가 떨어질 확률도 불을 확률도 딱 반반인 것 같은 애타는 마음에, 대한변협의 성명은 무척 서운하게 느껴졌다. 서운하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리자, 어떤 변호사님이 댓글로 답했다. "변호사가 되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 변호사님의 예언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로스쿨 변호사 중에서도 합격률 상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제도 수호에 적극적인 변호사 중에서도, '청년변호사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합격률에 대해 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꽤 된다.

나는 이제 변호사가 된지 일 년이 지났다. 짧은 시간이지

만, 많은 것을 배워나가고 있는 중이다. 정신없이 바쁘다. 하고 싶은 활동과 일을 병행하는 변호사생활은 고되고 행복하다. 하지만 내 마음에 맞는 취업 자리를 구하는 과정이 어려웠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었던 것일까. 자꾸 변호사가 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내 생각이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2015년 겨울의 기억 때문이다.

법무부는 2015년 12월 '사시폐지 4년 유예안'을 발표했고, 로스쿨 학생들은 학사거부와 변호사시험 응시 거부 등의 단체 행동에 나섰다. 선배 변호사들도 힘을 보탤다. 대부분 모범생의 삶을 살아왔을 로스쿨 학생들은 목숨과도 같이 여겼던 '시험'을 거부하였고, 거리에 나가 '집회'라는 것을 했다. 두 번의 집회 모두 비가 내렸다. 비가 많이 내리던 법무부 앞에서, 나는 로스쿨 학생들이 모종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약속의 기억이 로스쿨제도에 대한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하게 만든다.

그 약속은 단순하다. 우리가 말했던 '로스쿨제도'의 취지를 잊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취지에 걸맞는 변호사로 살아가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2015년 당시 주장한 슬로건은 '사법개혁'이다. 로스쿨의 기본 구조는 이미 완성된 수험생을 법조엘리트 선발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인재를 교육하여 법조인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로스쿨은 다양하고 유능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지역인재와 사회소외계층 선발을, 다양한 장학제도를 담보한다. 이와 같은 로스쿨이 '사법개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로스쿨 변호사들로 인해 국민들에게 보다 저렴하고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국민들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스쿨의 취지를 살리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변호사시험의 경쟁이 첨예해지고 그 경쟁이 강조될수록,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는 퇴색된다. 로스쿨은 수험생들 간의 '경쟁'을 기본 구조로 설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

나는 호황기를 겪지 않아
잘 모르지만,
법조 시장이 과거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사회 곳곳에는
변호사가 더 필요하다.

다. 경쟁을 통해 변호사를 선발한다면, 이미 훌륭한 사법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굳이 로스쿨 제도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결국, 합격자 수를 일정하게 제한함으로써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합격률이 정상화되지 않고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화 되지 않는다면, 로스쿨 제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는 아직 사라질 수 없으며, 잘 운영되어야 한다. 로스쿨 제도는 아직 장점이 더 많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 3년간 훌륭한 교수님들 밑에서 법학을 배웠고, 다양한 기관들에서 실무수습을 경험할 수 있었다. 로스쿨 변호사들이 시장에 대거 등장하면서, '공익인권전문변호사'라는 생소한 영역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민변에 신입회원이 폭발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최초의 시각장애인 변호사, 최초의 트랜스젠더 변호사 모두 로스쿨 출신이다(그들은 나의 자부심이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렵지 않게 변호사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그 변호사님의 예언과 달리, 나는 아직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화 되어야 하며, 합격률은 정상화되어야 한다. 나는 호황기를 겪지 않아 잘 모르지만, 법조 시장이 과거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사회 곳곳에는 변호사가 더 필요하다.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로스쿨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나는 2015년 겨울 원우들과 함께 했던 '로스쿨의 취지를 잊지 말자'는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다.

나는 로스쿨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창**

신하나 변호사

대학을 졸업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상근간사로 5년을 일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덕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 문제, 하도급 문제, 스타트업 지원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로스쿨과 변협, 갈등의 역사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개원 10년차를 맞이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지난 10년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의 갈등과 기나 긴 전쟁같은 싸움을 빼 놓고 얘기할 수 없다. 변협은 로스쿨이 우여곡절 끝에 개원한 2009년 이후는 물론이고, 도입논의가 시작된 1990년대 김영삼 정부때부터 지속적으로 '반(反)로스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왔다. 변협이 항상 기준점으로 삼는 사법시험 합격자수 1000명도 실은 로스쿨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던 변협을 고려해 과도기적으로 사시 합격자를 늘렸던 결과다.

최근 사법개혁의 대상으로 전관예우 등 고질적인 변호사 업계 부조리가 떠올랐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이 논의되던 1990년 중반엔 전관예우는 법조비리로 보지도 않는 문화가 있었다. 변협을 주축으로 한 변호사업계는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전관예우는 당연하다는 태도를 취했다. 나쁜 관행이 전통으로 포장된 셈이다. 변호사 업계는 수십년을 사시 합격의 '과실'을 고액 연금 수령하듯 안전하게 기득권을 유지하고 배타적인 시장을 만드는 것에 주력해왔다. 그 과정에 사실상 불법인 전관예우가 있었고 사법연수원 선후배끼리의 끈끈한 애정은 기득권 유지의 버팀목으로 작용했다.

◇ 변협 기득권 유지에 걸림돌인 '로스쿨'

치열한 '경쟁'은 선비이자 양반인 '변호사'라는 직업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졌다. 변협의 광고 규정이 엄격한 것과 로스쿨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것은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 되도록 '경쟁'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결국 '기득권' 보호다. 정부 주도의 로스쿨 도입 시도는 변호사 업계에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위기감을 느낀 변협

은 사활을 걸고 막으려 했다.

최초의 반대 성명은 1995년 3월 27일에 있었다. 변협은 성명에서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법문화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서 법조계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제도의 개선을 통해 법조인력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정부는 결국 사시 합격자수를 1996년부터 매해 100명씩 늘리는 임시방편을 택했다. 당시에도 최종적으로는 합격자를 1000명 이상으로 최대 2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600명선에 머문 지금, 변협은 그것도 줄여 1000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20여년전 정부는 사시인원을 늘려 2000명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장기계획을 세운 바 있다.

◇ 법조비리 터져도 변협은 기득권 고수에 총력

김대중 정부에선 1999년 대전·의정부 법조비리가 터져 변호사업계가 위기를 맞았다. 법조계 내에선 관행이던 일들이 언론 보도로 외부에 전해지자 논란이 제법 컸다. 법조계 고질병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변호사법 개정을 통한 변협의 복수 임의단체화와 변호사 등록 및 징계권 환수라는 강경한 변호사업계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 위기를 변협은 '셀프개혁 선언'으로 돌파했다. 변협은 결의문에서 "대전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쏟아지는 국민의 질타를 자업자득의 결과로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전관예우, 사법 브로커 등 법조비리 관행 척결을 위해 신임 집행부를 중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하며 개혁 노력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변호사법 개

최근 사법개혁의 대상으로 전관예우 등 고질적인 변호사업계 부조리가 떠올랐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이 논의되던 1990년 중반엔 전관예우는 법조비리로 보지도 않는 문화가 있었다. 변협을 주축으로 한 변호사업계는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전관예우는 당연하다는 태도를 취했다. 나쁜 관행이 전통으로 포장된 셈이다. 변호사 업계는 수십년을 사시 합격의 '과실'을 고액 연금 수령하듯 안전하게 기득권을 유지하고 배타적인 시장을 만드는 것에 주력해왔다.

정'에는 반대했고 결국 변협 기득권을 지켜냈다. 20여년 전 모습이지만, 올해의 일이라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그 정도로 변호사업계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했고, 법조인들은 개혁을 체질적으로 싫어했다.

◇ 법조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개혁, '로스쿨'

그렇게 수십 년간 이어진 변협의 기득권 유지체제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는 '로스쿨'이었다.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 자신들의 기득권과 법조계 관행은 어떻게든 지켜내던 변

협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극적으로 로스쿨 도입이 결정되면서 법조 기득권에 크게 금이 간 셈이다. 그런 과정을 돌아보면 지난 20여년간 변협이 왜 그토록 로스쿨을 방해하고 없애려 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수 있다. 로스쿨이 들어서면서 기존 변호사업계 질서를 흔들고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이 결정된 후에도 변협은 포기하지 않았다. 로스쿨 설치대학과 입학정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로스쿨대책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2009년 로스쿨 개원 직후까지 활동하게 했다. 변협 내에서 로스쿨 반

지난해 변협 협회장은 취임하면서 로스쿨을 공격하지 않고, 사시존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사시존치'라는 단어만 나오지 않았을 뿐 로스쿨 정원을 줄이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축소시키려는 노력은 그전 집행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끝난 듯 했던 로스쿨과 변협의 불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다음 변협 선거는 불과 1년 정도 남았다.

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던 중견 변호사가 로스쿨 개원 초인 2009년 봄, 전국을 돌며 법조인이 되려는 꿈을 품고 이제 막 입학한 1기 학생들에게 “로스쿨과 사시출신은 다른 대접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강연을 한 적도 있다. 나중에 변협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던 그 대형로펌 대표급 변호사는 '선배 법조인과의 대화'라는 형식을 빌려 1기 입학생들에게 잊을 수 없는 모멸감을 줬다. 그의 특장은 변협 주축이던 중견 변호사들의 로스쿨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몸부림이었다.

◇ 로스쿨 개원 후에도 기나 긴 싸움

2009년 개원 이후에도 로스쿨과 변협은 갈등관계가 계속됐다. 변호사업계를 대변하는 변협은 로스쿨을 어떻게든 폐지시키거나 좌절시키려는 목표를 세웠다. 여기에 많은 연수원 출신 젊은 변호사들이 동원됐다. 소위 '청년 변호사' 그룹이다. 지금이야 '청년'이란 호칭을 로스쿨, 연수원 구분없이 쓰지만 한때 '청년'은 연수원 출신의 주니어 변호사들에게만 허락된 명칭이었다. 실제로 2013년 10월 변

협 주최 '청년 변호사의 밤'이라는 행사는 연수원 출신만 초청됐고 행사목적 자체가 '사시 존치 활동'이었다. 로스쿨과 변협의 싸움이 가장 치열했던 지난 2015~2017년, 변협은 협회장 중심으로 서울변호사회와 힘을 합쳐 가장 강력하게 로스쿨을 공격했다. 연수원 출신 청년 그룹은 변협과 서울회에서 임원을 맡으며 주도적으로 사시존치를 위한 활동에 매진했다. 이 전쟁 속에 정치권도 휘말려 로스쿨 재학·졸업생을 둔 몇몇 국회의원들은 배지를 잃거나 탈당에 몰리는 상황을 맞았다. 로스쿨 변호사들은 스스로 소속된 변협과 서울회의 횡포에 좌절했다. 변호사회원들이 내는 회비와 경유증표 구입으로 모인 예산이 사시존치에 쓰이며 로스쿨 변호사들은 소수임을 깨닫고 좌절하기도 했다.

◇ 끝나지 않은 전쟁, 변협 선거가 '중전선언' 될까

지난해 변협 협회장은 취임하면서 로스쿨을 공격하지 않고, 사시존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사시존치'라는 단어만 나오지 않았을 뿐 로스쿨 정원을 줄이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축소시키려는 노력은 그전 집행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끝난 듯 했던 로스쿨과 변협의 불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다음 변협 선거는 불과 1년 정도 남았다.

변협 협회장은 변호사업계를 대표하는 자리로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다. 로스쿨 변호사들이 생업에 바쁘면서도, 이번 선거에 주목하는 이유다. 이제 로스쿨 변호사가 전체 변호사의 절반 수준에 육박했다. 과연 다음 변협 집행부도 안티 로스쿨 활동을 하게 될지는 이번 선거 결과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

유동주 기자(변호사)

학 력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약 력 : 이데일리 증권부, 자산운용팀 기자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비서관
머니투데이 더300(정치부) 기자
머니투데이 더엘(theL) 팀장



로스쿨 창에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세요!

〈로스쿨 창〉은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스쿨과 관련된 내용의 원고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보내주세요.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오니, 로스쿨 재학생, 교수님, 외부 필진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로스쿨창에서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의견도 기탄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howe@leet.or.kr)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 또는 표절임이 판명될 경우 게재취소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박소희 대리 02)752-2037

변호사시험 합격 수기 : 변시 100일 전을 중심으로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보형



D-100에 느꼈던 두려움과 초조함 그리고 내 자신의 공부 방법이 맞는지 등 복합적이었던 심정과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7회 변호사시험을 치렀던 이보형이라고 합니다. 지금쯤 제8회 변호사시험을 100일 내외로 앞두고 공부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변시를 치른 지 수 개월이 지났지만, D-100에 느꼈던 두려움과 초조함 그리고 내 자신의 공부 방법이 맞는지 등 복합적이었던 심정과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이하에서 변호사 시험 100일 즈음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공부 방식 및 팁을 제 경험을 토대로 조심스럽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II. D-100에 기억하시면 좋을 3가지

많은 분들이 기본서 파, 핸드북 파, 객관식 파 등 다양한 학습 유형 파 중 하나로 준비 해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유형이든 D-100쯤 되면 전과목이 적어도 1회독 이상은 되어 있어야 이상적이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하셔도 이 세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최대한 단순한 것을, 최대한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습 유형으로 준비를 해오셨든 학교에서 받은 자료, 인강이나 학원에서 받은 자료, 따로 정리하고 있는 자료 등 자료가 굉장히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나로 종합하여 자신만의 자료로 만드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혹여 정리하다가 중

간에 그만두게 될 경우 멘붕에 빠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부족하지만 여러 자료를 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최소한의 자료만 선택해 반복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선택할 자료가 가장 효율적으로 변시에 나올만한 내용 대부분을 담고 있는지 따지는 것은,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경우가 경험상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내용만 반복하기에는 너무 부실한 것 같은데?’라고 느껴지는 자료조차 나중에는 버거울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걱정이 되시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중 그나마 ‘가장 많이 보셨던 자료’ 혹은 ‘가장 단순한 자료’만을 선택해서 반복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객관식 파여서 ‘유니언 객관식 기출문제집’ 및 ‘아우라 사례형 기출문제집 답안’, ‘교수님이 정리해주신 최신 판례 3개년’, 2017년 6모, 8모, 10모만을 선택하여 반복하여 보았고, 덕분에 변시 직전까지 3번은 반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다른 학우들이 추천하는 핸드북이나 선배님들의 정리 자료로 갈아타야 하는지 걱정될 시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한 시간이 지나면 넘어가야만 한다”입니다. 변시가 100일 남짓 남게 되면, 7법 및 선택법을 기한을 나누어서 공부하시게 될 가능성이 큼니다. 예를 들면, 대략 7법은 각 7일, 선택법 2일로 1회독(총 51일), 7법 각 5일 및 선택법 1일로 2회독(총 36일), 7법 각 1.5일 및 선택법 0.5일로 3회독(총 11일)으로 잡고, 2일 정도를 여유 시간으로 계획해 두는 방식이 가

변호사 시험에서 절반이나 통과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밖에 못 붙는 쉽지 않은 시험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100일 남짓한 시간은 정말 부족한 시간이지만 변호사 시험 하루 전과 비교해보았을 때는 꽤 많은 시간입니다. 지금 예상하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기한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학교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몸이 아플 경우도 있고, 갑자기 부족한 파트에 대해서 인강 등으로 보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밀리다 보면 어떤 과목은 전혀 보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특히 선택과목을 전혀 공부하지 않게 되는 문제는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변시 3일차에 처음 선택법을 펴보게 되는 등 과락의 위험성을 직시하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못한 부분은 다음 회독 차에 본다고 생각하고 우선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훑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상법 1회독 차에 보지 못한 어음, 수표법은 상법 2회독 차에 제일 먼저 보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꽤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록형은 기출문제를 적어도 일주일에 1번은 실전처럼 풀어보아야 한다”입니다. 확실히 실전처럼 연습하기 위한 시간을 내는 것은 10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주위에서 객관식은 누구나 실전처럼 푸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사례형과 기록형은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객관식은 실전처럼 유니언 기출문제집을 반복해서 풀고, 사례형은 아우라 답안 형식 틀을 외우고, 기록형은 스테디를 꾸려서 일주일에 1번 정도는 실전처럼 푸는 방식으로 공부했는데 부족한 시간 속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례형은 경험상 객관식 공부만으로도 내용면에서 부족함이 없었고, 실전처럼 풀지 않더라도 모범 답안의 틀을 외우는 것으로도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록형의 경우, 계속해서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간 분배 및 메모 방식에 익숙해야만 할 것 같았고, 실제로 주 1회 연습을 했던 것을 통해 시험 때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II. 맺으며

약 100일 간의 일정 뒤 변호사시험 당일에 기억하면 좋을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2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르겠으면 고민하지 말고 넘어간다”입니다. 변호사 시험은 최대한 다 맞아야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계속 들어오셨을 것입

니다. 시간 싸움이 관건이기 때문에 객관식이든, 사례형이든, 기록형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넘어가야 합니다. 객관식은 시간이 부족해 뒤에 풀지 못한 문제만 없게 만들어도 성공이고, 사례형과 기록형은 전부 건드리기만 해도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분명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못봤으면 다른 사람도 다 못봤다”입니다. 변호사 시험 도중에 자신의 답이 틀렸다는 사실 및 완벽하게 답안을 작성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후 시험에 크게 영향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못 봤으면 다른 사람들은 더 못 봤을 가능성도 많고, 실제로도 변시 성적이 나오면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어려웠으니 표점이 잘 나오겠거니’ 하는 마음가짐으로 나머지 시험을 치루시면 실제로 해당 시험은 물론 나머지 시험의 표점도 더 잘 나오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변호사 시험에서 절반이나 통과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밖에 못 붙는 쉽지 않은 시험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100일 남짓한 시간은 정말 부족한 시간이지만 변호사 시험 하루 전과 비교해보았을 때는 꽤 많은 시간입니다. 지금 예상하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드린 부족한 이야기들이 지금 열심히 해오신 시간들을 빛내 드릴 수 있는 작은 팁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

변호사시험 준비 과정을 마치며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수영



저는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6개월간의 실무수습 과정 중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으로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부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겪었던 경험들을 이 글에 담게 되었습니다.

I.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 - 민법 예습

많은 분들이 변호사시험에서 다룰 8법 중 가장 양이 방대한 과목을 꼽자면 누구든지 민법을 고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법학전문대학원 3년의 과정에서 민법 한 과목을 통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이 확정되고 남은 대학교 4학년 겨울 방학 동안 하루 종일 민법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며 민법 기본서를 1회독하였습니다. 입학 전 단권화가 된 민법 기본서는 제 법학전문대학원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민법 책 정리를 하며 시간을 써야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된 이유였습니다. 저는 기본서 정리가 다 되어 있었던 터라 수업을 들으면서 기본서에 추가적으로 메모하는 방식으로 기본서 정리를 마무리하였고, 쟁점별로 발췌독하며 1학년 때 중점적으로 민법을 공부하였습니다.

II. 나만의 원칙 - 학교 수업을 최대한 활용하자

전교 1등이 공부 방법에 관한 질문에서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고 학교 수업에 충신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일 지도 모르는 원칙입니다. 등록금을 내고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학교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얻어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수강신청 때부터 법을 처음 공부하는 초심자에게 적합하며 많이 배울 수 있는 수업을 위주로 들으려고 하였고, 수업을 들을 때는 졸지 않고 하나

도 빠짐없이 필기하려고 하였습니다. 수업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체크해줬다가 수업이 끝나자마자 교수님께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릴 정도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들은 설명들은 모두 과목당 제가 정해놓은 기본서 해당 부분에 메모해두었습니다.

III. 시험과목별 공부 방법

가. 선택형 시험

저는 사법시험을 준비해본 적도 없었고, 대학교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1학년 때는 주로 민법을 공부하였기 때문에 선택형 시험을 따로 공부한 시간이 다른 분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선택형 시험은 공부하면 끝까지 계속 점수가 오른다는 말만 믿고 마지막까지 뒤로 미뤄둔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후회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동기 분들에 비해 선택형 점수가 낮았고 상대적으로 사례형 및 기록형에 강한 편이었습니다. 3학년 때 모의시험을 치면서 선택형 시험이 불안해진 저는 일주일의 시간표에서 상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는 요일에는 제가 부족하거나 양이 많은 과목을, 수업이 많아서 시간이 없는 요일에는 제가 자신 있거나 양이 적은 과목을 배치하여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변호사시험에서도 모의시험과 마찬가지로 제 선택형 정답 개수가 전체 150

개 중 100개를 넘는 이번은 일어나지 않았습다. 올해 변호사시험 선택형 난이도가 높았다고는 하나, 그보다는 제가 선택형 시험 준비에 들인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형 시험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미하지만 제 선택형 점수는 확실히 올랐고, 시험공부가 선택형 시험에 대해 제가 느끼고 있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선택형 시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다면 매일매일 몇 문제만이라도 꾸준히 시간을 내어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나. 사례형 · 기록형 시험

저는 사례형 · 기록형도 선택형 시험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 기출 문제집으로 공부하였습니다. 학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따로 모든 과목의 사례집이나 기록형 문제집을 차근차근 볼 시간이 부족하다 느꼈기에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수업 중에 시간을 내어 풀어보게 하시고 그 다음 시간에 해설해주는 변호사시험 기출 문제를 복습 차원에서 다시 기출 문제

집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제가 정리한 기출 문제집은 이후 모의시험이나 변호사시험 전날 리마인드 차원에서 빠르게 한 번 훑어보기 편리한 요약집이 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여태 기출 되지 않은 쟁점들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쟁점들이 문제로 나올 것이라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출되었던 쟁점들조차 쓸 수 없으면서 다른 쟁점들만 공부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 출제된 쟁점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다른 쟁점에 관해 기술하는 기본 바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출 문제에 대한 중요도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과목마다 매번 시험에 빠짐없이 나오는 소위 “써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이, 이 부분은 수험생이 말 그대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쓴다면, 읽어보지도 않고 부여된 점수를 준다는 공법 기록형에서의 ‘재판의 전제성’ 등이 그것입니다. 저는 사례형 및 기록형 기출문제집을 정리하며 반복해서 출제되는 위와 같은 “써야할 것”들을 시험장에서 떠올리며 쓰는데 시간을 지체하지 않게 매번 암기하였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특히 형사법 기록형 시험은 검찰실무2 및 형사 재판실무 수업을 수강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록형에서 중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반복해서 듣다보니 형사법 기록형 시험은 다른 시험들에 비해 부담이 덜하였습니다.

IV. 결어

사람들은 늘 저를 보고 놀라며 묻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냐고. 저는 사실 법조인에 대한 큰 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 꿈은 이와 전혀 다른 언론 분야였습니다. 대학교 학부 시절 제가 가고 싶은 길과 갈 수 있는 길 사이에서 방향도 하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와 검찰 임용에서 탈락하고 3학년일 때도 쉽게 오르지 않는 성적과 무기력함, 불안감, 잘하는 동기들 사이에서의 열등감 등을 느끼며 슬럼프에 빠져 주말 내내 집에서 나오지 않거나 거의 30시간 동안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집에 틀어박혀 있는 등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될 진 모르지만 향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일을 보다 쉽게 이룰 수 있단 생각에 현재 법조인의 길을 걷는 것을 택했고, 그 선택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저는 길을 선택하였고 주어지는 과정들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해야만 하는 것들을 망설임 없이 실천해나가신다면 어느 순간 법조인이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창](#)



법원 심화 실무수습, 고민하지 마세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이보경



법원 인턴과정을 통해 미리 법원을 경험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기록을 검토할 수 있고, 자유롭게 법정 방청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법원 심화의 장점입니다.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이보경이라고 합니다. 많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방학 때 실무수습을 할지, 한다면 어떤 곳에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실무수습 기간에는 공부를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에 실무수습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가 학생들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많은 고민 끝에 서울 고등법원 2018 법원 실무수습 심화과정(이하 '법원 심화'라 합니다)을 수료하게 된바, 법원 실무수습 지원을 고민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의 경험을 진솔하게 적어보고자 합니다.

II. 지원 동기

법원 심화는 3학년 진학을 앞둔 겨울방학에 3주라는 비교적 긴 시간 실무수습과정이 진행되므로, 재판연구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판연구원 희망 여부를 떠나 법원 심화를 추천합니다.

우선, 법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소송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면 법원 시스템을 알 필요가 있는데, 법원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게 될 확률이 더 높기에 이런 시스템을 경험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법원 인턴과정을 통해 미리 법원을 경험하는 것은 법

조인으로서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아래에서 상술하겠지만 다양한 기록을 검토할 수 있고, 자유롭게 법정 방청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법원 심화의 장점입니다. 따라서 법원 심화 지원에 있어 재판연구원 희망 여부만을 절대적 지원 동기로 삼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III. 법원 심화 지원과정

2018년부터는 면접절차가 생략되었고, 서류 심사만 선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원기간은 1주일 정도였고, 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심화과정 지원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교수님 추천서 2부, 그 외 증빙서류 등으로, 학교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고 이후 학교에서 추천자를 선발하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배정 법원 등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심화과정 지원서 작성 과정에서 배정되기를 희망 하는 법원과 재판부(민사부, 형사부 등)를 각 1순위에서 3순위까지 기재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를 고려하여 배정이 이루어졌고, 각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에 비례하여 학교별 선발인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처음 지원할 때부터 교수님 추천서 2부를 받아서 제출하였기 때문에 지원을 부담스러워 하는 학생들도 꽤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원한 학생 중 최종 추천 대상자에 한하여 교수님 추천서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었다고 하니, 이 부분은 각 학교의 지원공고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법원 실무수습에서 가장 큰 장점이 다양한 생기록을 검토할 수 있고, 특히 민사사건이라면 원고와 피고, 형사사건이라면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내 추천의 경쟁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IV. 법원 심화 실무수습 진행과정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명당 1개 재판부가 지도 재판부로 배정되며, 따로 정해진 실무수습과정 없이 각 지도 재판부 판사님들과 협의에 따라 실무수습과정이 자유롭게 진행됩니다. 이 점이 법원 기본 과정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록 검토가 주를 이루고, 자유롭게 법정 방청이 가능하므로 이 두 가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법원 심화 진행과정을 상술하겠습니다.

① 기록 검토

법원 실무수습에서 가장 큰 장점이 다양한 생기록을 검토할 수 있고, 특히 민사사건이라면 원고와 피고, 형사사건이라면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을 읽다가 한쪽 당

사자의 의견에 좀 더 마음이 가게 되더라도, 반대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발견하기도 하는 등 균형감 있는 사고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록 검토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수업과도 연결이 됩니다. 저는 형사재판부에 배정되었었는데, 형사재판실무에서 배웠던 기록 검토 방법과 검토보고서 작성법을 직접 활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두껍고 어려운 기록들이었지만 수업 때 배웠던 기억을 되새기며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기록을 검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민사재판부에 배정된 학생들의 경우, 3학년 1학기에 민사재판실무를 많이 수강하기에 미리 대비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 재판부 판사님들께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는 이론적, 실무적 측면에 대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저의 일화를 예로 들자면 법원 심화 과정 중 유가보조금 수급과 관련된 사기죄 사건을 검토한 적이 있는데, 저는 상당히 형식적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와 보조금 수령자인 제3자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결론의 당부를 떠나 이런 사건에서는 보조금 부정 수급의 사전 방지라는 목적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

재판 방청에는 딱히 보고서 제출이 따르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방청으로 끝내지 않고 방청기를 작성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방청 내용을 간략히 메모해온 이후에 제가 들었던 것을 바탕으로 어떤 사건인지,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나름의 결론을 내리는 식으로 방청기를 작성하였는데, 한정적으로 들은 내용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해야 하고, 관련 법리도 찾아야 하기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법원 심화 실무수습을 나가실 경우, 틈틈이 방청을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을 적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무에서는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결심기록을 검토한 경우 판결문을 작성하기도 했는데, 실제 재판부에서 작성된 판결문을 프린트해서 제가 쓴 판결문과 비교해보는 것이 상당히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개인별로 검토한 기록 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최대 10개의 기록을 검토하신 분도 있었고, 저는 그렇게 많은 기록을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중간에 기록 검토가 빨리 끝난 경우 판사님들께 다른 기록을 주실 수 있는지 여쭙보고 새로운 기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판사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일정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 심화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② 재판 방청

대부분의 실무수습생들이 본인이 검토한 사건 중 일부를 방청합니다. 저 또한 제가 검토한 사건의 재판을 방청하며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기록 검토 스케줄을 조절해가면서 3학년 1학기에 민사재판실무 과목을 수강할 것을 대비하여 민사재판 방청을 많이 했고, 몇 건의 행정재판까지 방청을 하며 각 재판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경험해보았습니다.

재판 방청에는 딱히 보고서 제출이 따르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방청으로 끝내지 않고 방청기를 작성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방청 내용을 간략히 메모해온 이후에 제가 들었던 것을 바탕으로 어떤 사건인지,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나름의 결론을 내리는 식으로 방청기를 작성하였는데, 한정적으로 들은 내용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해야 하고, 관련 법리도 찾아야 하기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법원 심화 실무수습을 나가실 경우, 틈틈이 방청을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V. 글을 마치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주라는 시간동안 법원 심화를 통해 저는 굉장히 값진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법원 심화 지원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법원 심화를 지원할지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 글이 지원 여부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창**



BOOK

누구나 아름다울 수 있는 사회적 무대로 확장되어가는 한 편의 긴 변론서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1급 지체장애인인 변호사 김원영이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삶, 실격당한 인생이라 낙인찍힌 이들의 삶을 변론하는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저자는 소수자들이 삶에서 만나는 연극적인 순간들, 즉 차별과 배제, 수치와 모욕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 노련하게 맞받아치고 우아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놓인 딜레마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변호사이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관으로 일했던 저자는 법의 문지기로서 차별당하는 이들을 만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가 보호와 치료, 복지라는 이름으로 인간 존엄의 가장 기본적 전제인 개개인의 고유한 서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한 사람이 자신의 신체와 정신을 온전히 지닌 채 써온 인생의 이야기를 오랜 시간 지켜봐줄 수 있는 시선이 있다면, 그런 무대가 모두에게 주어진다면 실격당한 존재들도 아름답고 매력적일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저 자 : 김원영 판매가격 : 16,000원
 판매처 : 온·오프라인 서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의 시각으로 풀어낸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집

올해 6월에 시행된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의 영역별 문제와 해설을 담았다. 문제별로 정답률을 수록해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역별 전문가의 해설을 덧붙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제작대상 : 공법, 형사법, 민사법 - 선택형, 사례형에 한함

판매가격 : - 2018년도 제1차 : 단행본(10,000원)
 - 택배비 4,000원(단, 4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신청방법 : 상시주문

1. 교재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lawschool@leet.or.kr) 송부
2. 입금계좌(우리은행 1005-303-018484 삼영문화사 이준규)로 입금



반려견 정책의 쟁점과 과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



몇 년 전부터 나름의 집필계획을 가지고 책과 논문을 쓰고 있는데, 예전에 없던 '반려견 법률상식'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다양한 관심을 가진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단독에서 우연히 반려견에 관한 법적 분쟁이나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재미삼아 온·오프라인에서 반려견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게 되었다. 그런데 반려견과 관련한 책은 많아도 반려견과 관련된 법률서적은 거의 없고 관련 논문도 그리 많지 않으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반려견 관련 법률정보는 오래되거나 부정확한 것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반려견의 수가 많고 반려견 문화나 반려견 관련 산업이 발달한 몇몇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니, 반려견 관련 정책과 법령이 다양하고 따라서 반려견 관련 법률문헌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국내의 문헌과 자료들을 모으게 되었고, 기왕에 찾은 자료를 정리해 보자는 생각에서 간단한 내용의 책을 쓰게 되었다. 반려견을 키우는데 필요한 법령이나 판결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고, 향후 고려하여야 할 정책이나 입법에 관한 문제도 생각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이제 반려견과 반려묘를 포함하여 반려동물 천만시대가 왔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약 5천만명 정도이니 다섯 사람 당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기르는 반려동물 중에서는 반려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많은 가정에서 반려견을 키우다보니 반려견과 관련된 분쟁이 종종 일어나고 있고, 이는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근래에 들어와서는 사람이 반려견에 물려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도 드물지 않아서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일도 종종 있다. 반대로 반려견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동영상으로 인하여 동물학대 방지와 처벌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고 개식용금지법 제정 문제를 두고 찬반 양론 간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반려견의 수가 많아지고 반려

견과 관련한 이견과 분쟁이 발생하면서, 반려견 분쟁과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입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반려동물등록제 등 이전에 없던 제도가 도입되고 반려견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 등이 제정 혹은 개정되어, 여러 제도와 법령을 알아야 할 필요도 절실하게 되었다. 또한 반려견이 많아지다 보니 기존의 반려견 정책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반려견 정책을 변경하자는 주장도 많아졌다. 반려견 정책과 법령의 변경 논의에는 의견과 이해가 충돌하는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반려견 정책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변경되는 정책에 대한 올바른 입장과 대응이 필요하기도 하다.

개는 귀여움과 즐거움의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애완견(愛玩犬)이라고 부르다가 이제는 삶의 반려라는 의미가 반영된 반려견(伴侶犬)이라고 부른다. 이는 외국에서도 애완동물(pet)이라고 부르다가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동물관련 심포지엄에서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한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범위에 반려동물이 21.4%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핵가족화 또는 일인가구의 증가와도 비례한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을 질문했더니 반려동물이 가장 의지가 된다고 답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접한 사람만이 개가 아프면 동물병원에 데려가 수십만원 이상의 병원비를 내고 자기가 아프면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먹는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반려견 미용실은 잘 하는 곳을 찾고 자기가 갈

강아지 공장, 뜬장, 유기견 입양, 유기견 안락사, 맹견 관리, 대형견 입마개 의무화, 개파라치 제도, 반려견 의료과실, 반려견 양육권 분쟁 등등 개고기식용금지법 제정 문제 이외에도 반려견과 관련하여 풀어야 할 문제들은 셀 수 없이 많다. 이러한 문제 중 몇 가지는 이해관계나 주장이 크게 대립되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미용실은 싸게 하는 곳을 찾는, '반려견 행동심리'가 아닌 '반려견 주인들의 행동심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법」을 비롯한 우리의 법령에서는 '사람'이 아니면 '물건'이지만, 독일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에게 물건 이상의 법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헌법」에 동물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이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동물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자동차 뒤에 매달고 다니다 죽이거나 묶인 개를 굶겨 죽여도 실효적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물관련 판례와 법령이 보다 진전되거나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기도 척박하고 어려운 세상에 개 몇 마리 죽이거나 죽는 것이 무에 그리 대수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찍이 마하트마 간디가 말한 것처럼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나라에서 동물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도처에서 개처럼 서로 으르렁거리는 나라로 남을 것인가 반려견을 존중하는 공동체로 나아가 갈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다. 최근 이탈리아의 축구 해설자가 우리나라 축구선수에게 "개고기로 만든 간식을 먹는 나라의 선수"라는 말에 분개하였다면, 반려견을 포함하여 동물보호를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

강아지 공장, 뜬장, 유기견 입양, 유기견 안락사, 맹견 관리, 대형견 입마개 의무화, 개파라치 제도, 반려견 의료과실, 반려견 양육권 분쟁 등등 개

고기식용금지법 제정 문제 이외에도 반려견과 관련하여 풀어야 할 문제들은 셀 수 없이 많다. 이러한 문제 중 몇 가지는 이해관계나 주장이 크게 대립되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근래에는 맹견 관리가 문제되었다. 맹견에 의한 물림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맹견의 외출제한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맹견은 어린이집·유치원·초중등학교는 물론이고 시·도 조례에 따른 공공장소에도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맹견을 데리고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에 더하여 입마개를 의무화하였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열거되어 있는 맹견의 종류가 도사견, 핏볼테리어, 스탠퍼더서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으로 너무 제한적이니, 마스티프, 라이카, 강갈, 울프독 등을 추가하자는 의견은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으로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가 규정되어 있지만, 맹견의 종류 자체를 확대하자는 주장이었다. 맹견을 포함하여 체고 40cm 이상인 경우에도 입마개를 의무화하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1월 발표는, 순한 대형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예를 들어, 순하기로 소문난 리트리버 종류의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고 외출하라는 것은 일종의 동물학대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체고 40cm 이상 대형견에 대하여 입마개를 의무화하려는 방안은 법령개정에 반영되지 못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외출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목줄을 매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경우 등의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일명 '개파라치' 혹은 '뺨파라치'라고 부른다. 2017년 3월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인데, 2018년 3월 22일로 예정된 시행을 앞두고 신고포상금 제도의 시행은 연기되었다. 신고포상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동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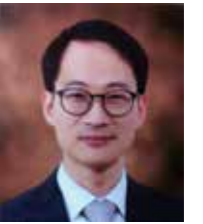
호법」과 시행령은 개정되었지만, 포상금 지급의 세부기준과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과 고시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개파라치 제도에 대한 반감과 물가를 정당화해 줄 가능성 등이 지적되면서 반려인들의 반발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개파라치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부부가 이혼하거나 동거하다가 헤어질 때 반려동물의 양육권이 문제되고 있고,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을 법원에서 다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혼시 혹은 동거관계의 청산시에 반려견을 누가 기를 것이냐가 문제된 적은 있지만, 반려견의 양육권만을 대상으로 하여 소송이 제기된 적은 없었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결되고는 하였다. 그러나 반려견을 우리보다 많이 키우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반려견의 양육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향후 우리에게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반려견 관련 법령과 정책에도 균형감이 필요하며, 앞으로 일어날 반려견 관련 법적 분쟁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은 반려견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제약이나 제제가 가해지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반려견을 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배설물, 안전사고나 양육권 분쟁 등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는 법적인 틀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법률가들에게 주어질 새로운 임무이다. 흥미롭지 아니한가? **창**



인공지능과 법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용 교수

1.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인가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정답이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질문하는 방법과 답하는 방법조차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가장 영향력이 큰 프레임을 꼽자면 정책학적 접근방법을 들 수 있다. 이 접근법의 토대가 되는 후생경제학의 분석틀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현대적 버전이다. 시장의 효율성은 생산·소비·분배의 모든 측면에서 벤담이 말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나 그 결과가 사람들의 정의 관념 즉 형평성에 반드시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학적 접근방법은 형평성의 이상을 시장 개입이 아니라 재분배 수단에 의하여 달성할 것을 강조한다. 처음부터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것과 일단 받은 것을 빼앗아 다시 나누어주는 것 사이에 놓인 심리적 간극을 애써 무시한다면, 위와 같은 접근방법은 그런대로 수긍할 만한 것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를 보장하는 것은 공리주의의 실현 수단일 뿐만 아니라 칸트 류의 의무론적 정의관에 따라 인간이 도덕적 삶을 영위하

기 위한 전제이기도 하므로 권장될 만한 일이다. 시민혁명의 결과 탄생한 근대 헌법들은 이러한 경제적, 지적 바탕 위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옹호하였다. 근대 민법들 역시 사적자치의 원칙을 선언하는 한편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과실책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욕구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사람과 자원을 배치한 결과 나타나는 것은 무지개 빛만은 아닐 수도 있다. 형평성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고 빈부 격차가 확대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이 효율성이라는 본래의 기능조차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단순히 욕구라는 것으로 환원되기 어려운 가치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현대의 법제도는 이러한 문



시장의 효율성은 생산·소비·분배의 모든 측면에서 벤담이 말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나 그 결과가 사람들의 정의 관념 즉 형평성에 반드시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제에 대한 고민의 결과를 포용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실질적 사적 자치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고, 시장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경쟁법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세법과 사회법이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패자가 다시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산법이 마련되어 경제적 의미에서의 사망과 부활을 치리하기도 한다. 이처럼 오늘날의 법제도는 대체로 개인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경제 원칙과 그 수정이라는 프레임으로 좋은 세상과 그렇지 않은 세상의 모습을 묘사한다.

2. 인공지능 기술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옆에 있어 왔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것은 최초의 컴퓨터가 만들어진지 10년 남짓 만인 1956년 다투머스 회의(dartmouth conference)에서였다. 인공지능 기술의 양대 진영, 즉 상징 조작과 알고리즘에 중점을 둔 소위 'GOFAI(Good Old-Fashioned Artificial Intelligence)'와 뇌 구조를 본뜬 인공지능망에 중점을 둔 '연결주의(Connectionism)'의 대결은 수 십년간 전자의 압도적 우세 하에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병렬 처리를 비롯한 컴퓨팅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가용 데이터가 폭증하며 몇몇 천재에 힘입은 알고리즘의 혁신이 이루어진 결과 인공지능망 진영의 반격이 거세어졌다. 흔히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기술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어 종전에는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마법처럼 해내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은 이미 신문 기사를 작성하고, 간단한 법률 상담을 하며, 법안 통과 확률을 알려주고, 스스로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 딥러닝 기술이 제공하는 분석, 지식 증강, 생성, 예측 능력은 인간의 판단 및 의사결정을 보조하면서 모든 분야의 생산성을 급속도로 끌어올리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높이며 시장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적 효율성(static efficiency)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혁신을 통하여 동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을 증가시킨다. 이는 분명 좋은 세상을 향한 좋은 징조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알고리즘, 특히 'black box'라고 묘사되는 딥러닝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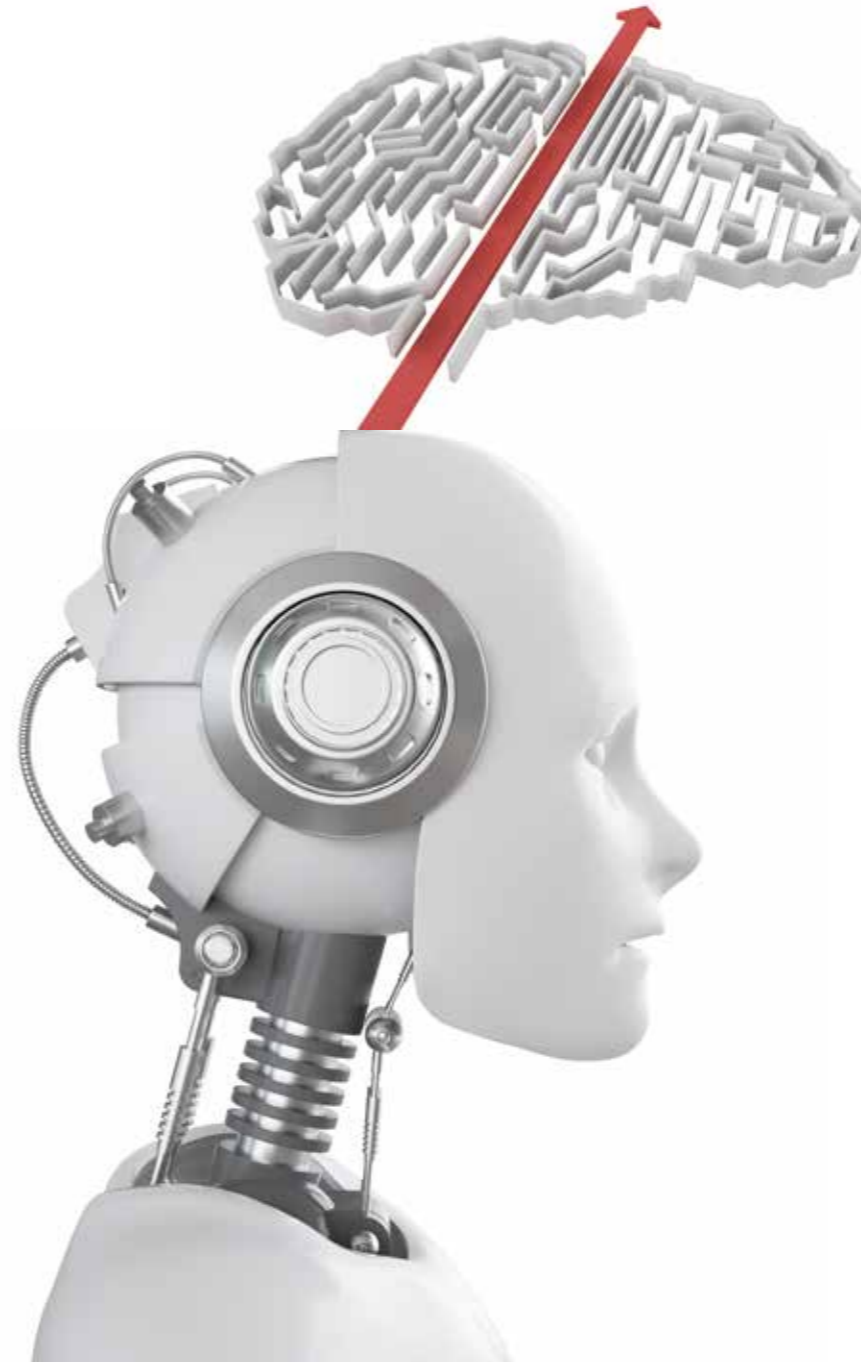
장벽,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최적의 정보만을 선택함에 따른 정보 다양성 상실과 그로 인한 혁신 동력의 상실, 나아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담합 조장의 우려 등은 모두 시장의 효율성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효율성을 벗어나 형평성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더 큰 문제들이 보인다. 우선 시장 원리상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자에게 생산성 증가로 인한 이익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탓에 빈부 격차 확대의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전직이나 재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편견과 차별을 확대 재생산하고, 검열이나 조작의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자율무기에 대한 경고음도 점점 커지는 중이다.

3. 법제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그러나 이러한 역기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오히려 인공지능 기술의 순기능을 증폭하고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출발점은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개입 없이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율성,'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합리성,' 상대방의 입장에서 인간과 유사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유사성'의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오는 생산성 증가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기존 법제도에 상당한 도전이 되기도 한다.

먼저 인공지능의 자율성은 결과에 대한 책임의 유무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한다.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은 적어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책임성, accountability). 이를 위하여 알고리즘 투명성(transparency)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결국 행위자의 귀책 사유를 전제로 하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은 후퇴하고 현대적인 위험책임의 법리나 그 변형된 모습에 호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에 관한 논의에서

인공지능의 인간과의 유사성은 혁신의 한 원천이 될 수도 있지만 사기 등 범죄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 경우 기존의 형법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자책임이나 제조물책임의 법리가 많이 원용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계약법적 관점에서는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한 계약의 효과를 이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과연 사적자치의 원칙에 부합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단순히 이용자의 도구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시대에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와 상대방의 이익조정 문제는 좀더 까다로울 뿐이다.

인공지능의 합리성은 적법행위와 위법행위의 양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각종 범죄에 활용될 경우 그 '합리성'으로 인하여 개인이나 사회에 대한 위협이 커질 수 있다.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저해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도구로 사용될 경우 반사회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최근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와 그 전제로서 알고리즘 투명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업의 자유와 영업비밀 침해가 없도록 이익 균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율무기와 같은 전지구적 문제에 대하여는 국제법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UN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FLI(Future of Life Institute) 등을 비롯한 비정부 기구들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적법한 행위의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의 합리성 격차(rationality gap)가 대표적인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비자법 원리의 유추에 호소하거나 인공지능 기술의 보편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의 인간과의 유사성은 혁신의 한 원천이 될 수도 있지만 사기 등 범죄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 경우 기존의 형법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는 인공지능의 행위를 법인격 있는 인간의 행위로 신뢰한 상대방의 보호 문제이다. 이는 의사주의와 표시주의의 대립, 법인의 권리주체성 인정, 각종 외관 법리와 같은 사법상의 여러 제도와 관련되어 있다. 일부 견해는 속성보다는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이러한 유사성을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대한 제한적 법인격 부여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적절한 법적·정책적 대응을 한다면 말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은 법률가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4. 예비 법률가를 위한 조언

인공지능은 법률가와 법률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에 대한 답을 찾는 출발점은 오늘날 법률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하여 매우 낮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아무리 간단해 보이는 사건도 여차 하면 수십 시간이 들어가기 일쑤이고, 분업에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한다. 변호사들이 아무리 쏟아져나와도 법률 서비스의 가격은 비용 구조상 여전히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법률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은 오랜 동안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의뢰인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동안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여전히 고통스럽다.

최근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진정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판단과 의사결정을 돕는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여 법률가들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유능하게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의 기술은 검색이나 자료 정리, 문서작성의 보조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능한 법적 구성들을 제안하는 수준까지 발전해 갈 것이며, 변호사

들의 업무는 보다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것으로 변해갈 것이다.

법률가들은 이러한 생산성 향상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존의 법률 서비스를 대중화하여 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시장을 일부 잠식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것이다. 나홀로 소송의 비중은 항상 변호사 소송을 압도해 왔다. 두 번째는 절감된 비용과 시간을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다. 미국의 이혼 전문 리걸테크 기업인 'Wevorce'는 법률 서비스에 재정 전문가 및 심리 전문가의 서비스를 추가하여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법률가들은 더 이상 '소송의 승패'가 아니라 '의뢰인의 고통'이라는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

5.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기존의 정책적 틀과 법적 틀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오는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하여도 충분히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적절한 법적·정책적 대응을 한다면 말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은 법률가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 기회를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이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세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아주 많이 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만큼은 각자가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창**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김지우 학생

실력 있으면서도 행복한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전액장학금을 받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지우 학생. 그는 로스쿨 학생으로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지만, 이를 긍정적인 원동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라고 조언했다. editor. 박소희



Q 학부 시절에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A 저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했는데, 학부 시절에는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 듣고 동기들과 많이 어울려 놀기도 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지금과는 학부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서였는지 모르지만, 입학과 동시에 진로에 대해 크게 부담을 갖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만큼 무언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던 시절도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외교학과 전공의 경우 학문의 특성상 매 수업마다 방대한 양의 리딩들을 소화해서 페이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 때문에 가방에 리딩들과 노트북이 필수품이었습니다. 짬이 날 때마다 읽고 정리해도 시간이 빠듯했거든요. 덕분에 전공 공부를 하면서 많은 양의 자료를 그때그때 정리하는 습관이 들었는데, 지금 로스쿨에서의 공부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걸 좋아해서 영문과, 중문과 수업들도 많이 찾아 들었고, 프랑스어, 일본어, 라틴어 등의 어학 수업도 많이 수강한 기억이 나는데, 그 때 배운 외국어들이 지금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Q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법조인이었나요?

A 어렸을 때는 잘 모르면서도 외국어 공부도 좋아하고 해서 '국제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학교에 장래희망을 써냈던 기억도 나요. 법조윤리를 공부하면서 '국제

변호사'는 없던 걸 알았습니다(웃음). 그렇지만 사실 대학을 지원하고 학부를 거치는 과정에서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크게 없었습니다. 학부 졸업 전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실제로 주변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가 생길 때도, '저 길은 내 길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컸어요. 막연하게 법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학업을 이어가면서 학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동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에도, 외무고시나 다른 분야로의 유학 등에 대해서 눈을 돌리긴 했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대해서는 큰 뜻은 없었어요. 대학원 진학 중에 학업에 정체를 겪으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생각했고, 평소 관심을 가졌던 디자인 공부를 해 보고 싶다고 결정해서 군 제대 이후에 프랑스 파리에서 디자인스쿨을 1년 정도 다녔어요. 계속 해오던 공부와는 너무나 다른 진로라 그런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마침 귀국 무렵 LEET 시험이 접수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조금은 갑작스럽게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의 진로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많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결국은 어렸을 때 적어낸 제 장래희망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지금이 운명일지도 모르겠어요.

Q 학부 시절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성적우수자로 전액장학금을 받으며 훌륭한 성적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A 법학 공부 경험이 전무했던 터라 처음에는 막연하게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에는 기본과목 위주로 수강하면서 법학에 대해 감을 잡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했어요. 제한된 시간 내에서 필요한 공부와 할 수 있는 공부를 빠르게 파악하고, 공부하는 내용들을 전반적인 큰 체계 속에서 끊임없이 포지셔닝 해 보면서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과서의 목차들을 복사해서 항상 옆에 두면서

사실 입학 전에는 법전원에서의 생활이 단조롭고 삭막할 것 같다는 편견 아닌 편견이 컸는데, 막상 입학하고 보니 많은 동기들 및 선후배들을 알게 되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공유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엄청난 즐거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다보니,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이 큰 틀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인지에 대한 생각들이 정리되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을 믿는 편인데,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해 스스로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하는 편입니다. 공부 자체를 '즐기는' 단계에 이르렀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열심히 함으로써 스스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은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에 대해서 결코 배신하지 않는 '공부'만 할 수 있는 지금에 감사하겠다고 마음먹으니, 성적이나 학점 자체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는 그리 크지는 않더라고요.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하면서 편안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공부만 하기도 빠듯한 법전원 생활에서 학생회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소개해 주세요.

A 친한 동기가 학생회장에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학생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업에 지장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많았는데, 동기, 선후배들 모두가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주셔서 큰 부담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회에서 '재무' 일을 맡고 있는데, 거창하게 들리지만 자치회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집행 여부를 다른 회원들과 함께 결정하고 그 집행내역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학생회에서는 공용프린터기 설치, 구급약품 구비 등의 복지사업을 추진했는데, 원우들의 반응이 좋아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어요.

Q 학교에서 얻는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인가요?

A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사실 입학 전에는 법전원에서의 생활이 단조롭고 삭막할 것 같다는 편견 아닌 편견이 컸는데, 막상 입학하고 보니 많은 동기들 및 선후배들을 알게 되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공유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엄청난 즐거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 격려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보낸 1년 반 정도 법전원에서의 일상

이 이제 제 인생에서도 중요한 한 페이지로 자리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3년간의 수험생활(?)도, 함께 할 것이기에 그리 두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Q 반면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A 개인적인 역량의 한계에 부딪혔다 느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법학이라는 학문의 생경함, 그리고 방대함 때문인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스스로가 많이 부족하다는 자괴감들이 빈번하게 찾아들곤 했습니다. 특히 입학 후 첫 학기에는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하는지 스스로에 실망하거나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괴감을 느끼거나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 압박감들을 학업을 위한 긍정적인 원동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가짐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방법,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스스로에게 몇몇할 수 있다는 생각들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Q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요?

A 지난 여름방학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실무수습을 받았는데, 실제로 많은 법조인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가까이서 지켜본 것이 처음이라 매일이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다양한 법조인들의 업무수행과정을 보면서, 우선은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법조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자부심도 결국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업무를 해낼 수 있기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은 자질을 갖추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과 다양한 가치들 속에서 균형을 잃지 않을 합리적 사고를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행복한' 법조인입니다. 스스로가 행복해야 타인의 문제들도 보다 잘 해결해줄 수 있을 거라는 한 판사님의 말씀이 크게 와닿더라고요. **창**

김지우 학생이 알려주는 로스쿨 입학 노하우!

1) 로스쿨 입시 어떻게 준비해야 효율적인가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로스쿨 입시를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하지는 못해서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노하우가 있지는 않아요. 다만, 학부에서의 학점 관리나 외국어 공부, 기타 자격증 등의 취득은 입시를 결정하는 처음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할수록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한 시간의 확보에서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로스쿨로의 진로에 어느 정도 확신이 섰다면, 바로 중단기적 계획을 짜서 실천에 옮기는 행동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2) 리트에서 좋은 성적은 얻는 노하우를 공유해주세요!
제 경우에는 로스쿨 입시를 조금 급하게 결정하면서, 리트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리트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중심으로 리트를 준비했습니다. 기출문제만으로는 문제가 조금 부족하다 생각해서, PSAT 문제 등도 함께 풀어보면서 틀린 문제들은 유형별로 분석해서 저만의 오답노트를 만들고 최적의 풀이과정을 고민해서 함께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준비 초반에는 70분 동안 30문항(언어이해), 125분 동안 40문항(추리논증)을 푸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20분 동안 10문항 식으로 시간을 안배해서 조금씩 푸는 방법을 택했는데, 적성시험의 특성상 개인의 심리상태나 당일의 컨디션 등이 큰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조금 힘들더라도 제한시간 내 한 회 분량의 문제를 모두 푸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준비과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3)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과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자기소개서나 면접의 경우에는 지원하는 법전원의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저의 경우에는 입시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 체류 중이어서 정보의 측면에서 크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최대한 저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 면접의 경우에도 짧은 시간에 단편적인 법학 지식을 습득해서 임하려 하기보다는, 학부까지 공부했던 경험을 토대로 최대한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저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소위 '리걸 마인드'를 평가하는 질문들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법 공부를 해야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은 아니기에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고 최대한 자신감 있고 분명한 어조로 논리적인 답변을 이어간다면 면접 과정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4) 이 외에 로스쿨 입시에 도움이 됐던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준비과정에서 '최근의 화제판결'들을 모아놓은 기사들을 틈틈이 챙겨 보았는데, 그러한 판결 자체가 면접에서 출제된 것은 아님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법학을 접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일견 불합리해 보이는 판결들이 어떠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검토를 통해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나를 고민해 볼으로써, 면접장 내에서 제시받은 낯선 주제에 대해서도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더 나은 세상! 동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재단법인 동천은 예비 법조인들의 공익·인권분야 활동을 장려하고 새로운 공익·인권 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동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오는 10-11월 새롭게 시작되는 제8회 공모전을 앞두고 지난해 수상자를 만나 공모전 우수 전략에 대해 들어보았다. editor. 박소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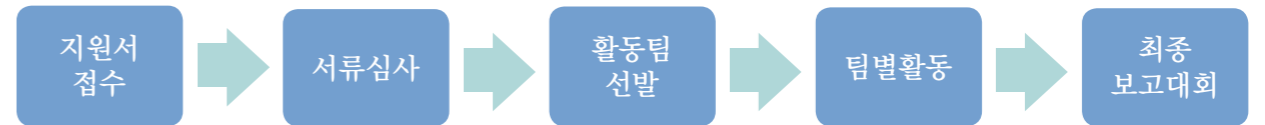


「동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은 공익·인권 분야의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법전문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현까지 하는 프로그램이다. 서류 심사를 거쳐 선발된 팀은 일정한 지원금을 받아 약 6개월 동안 자신들이 기획한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고 성과를 발표한다.

활동 주제 : 공익·인권 분야의 새로운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공익 활동

공익·인권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리서치 및 연구사업, 비영리단체 법률지원 등의 프로보노 활동, 리걸 클리닉 등 교육활동, 공익·인권 분야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익활동, 공익·인권분야 비영리단체 활동 등 법 관련 분야가 아닌 공익활동 주제도 가능하다. 기간 내 프로그램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 지속적인 활동 혹은 발전이 가능한 프로그램은 우대받는다.

■ 대회 프로세스



6개월 간 프로그램을 운영한 5개의 팀은 '최종보고대회'를 거쳐 그간의 성과물을 평가받게 된다. 동천은 대상팀과 최우수상팀, 우수상팀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시상하며, 수상하지 못한 활동팀에게도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시상금 외에도 활동팀에게는 재단법인 동천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공익·인권 분야에서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선배장애대학생과의 대화(7회 대회 우승팀 사례)

심사위원회는 동천 및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소속 변호사 및 재단법인 동천 협력 단체 등에서 추천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서류심사	최종심사
공익·인권지향성(30%), 실현가능성(30%), 독창성(20%), 발전가능성(20%)	프로그램 수행과정 및 내용, 최종보고서, 결과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장애대학생 사례발표 (7회 대회 우승팀 사례)



제7회 동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대상팀 '미라클 워커스'

Q. 수상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주세요.

▶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수상에 대한 생각보다 매 순간 기획한 활동들을 무사히 잘 마치는 것에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발표대회 전까지만 해도 전혀 수상은 예상치 못했는데요. 발표대회 당일 심사위원들이 "장애대학생 자기 옹호교육"이라는 주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그동안 적절한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팀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였는데, 그 결과가 좋아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Q. 팀원들이 함께 모이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팀명 '미라클 워커스'의 의미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세요.

▶ 저희 팀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장애인권소모임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모임 활동 중 장애인 교육권과 관련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고, 캠퍼스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장애대학생들을 직접 만나 대학생활 중 경험하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보고 장애대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법률적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팀명은 헬렌켈러와 함께 '기적을 행한 사람'이었던 설리번 선생님의 별명에서 착안하였습니다. 헬렌켈러와 설리번 선생님 처럼 저희도 장애대학생들과 함께 대학과 사회에 작은 변화와 기적을 만들어나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 보았습니다.

Q. 미라클 워커스팀이 기획했던 프로그램은 무엇이었나요?

▶ 주요하게 기획했던 활동은 크게 (1)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중 차별사례를 조사하고, (2) 차별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장애대학생 자기옹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3) 이를 바탕으로 장애대학생과 로스쿨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장애대학생이 실제 경험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분석과 대응전략을 기획해보는 자기옹호 워크샵을 진행하는 것이



미라클워커스팀 수상사진

었습니다. 차별사례 조사는 가능한 소속학교와 장애유형, 정도, 성별 등에 있어서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적 제한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개별, 집단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병행하였습니다. 특히 조사가 학내 현실과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질문지 구성 당시부터 각 학교 장애인권동아리와 협력을 통해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장애대학생에게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간략히 소개하고, 차별을 마주했을 때를 대비한 대응방안,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옹호기관의 접근방법 등을 쉽고 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안내서를 만드는 것을 핵심적인 목표로 두고 제작하였습니다.

워크샵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워크샵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워크샵으로 두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신입생 워크샵은 '전환기 교육'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애대학생 선배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대학에 입학할 앞둔 신입생들의 걱정과 고민을 비슷한 경험이 있는 선배들과 나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Q. 알차고 뜻깊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 차별사례 조사 단계에서는 각 대학의 장애인권동아리와 연락하여 직접 장애대학생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개별적으로 소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대학생을 1:1로 만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을 직접 만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총 25개 학교의 재학생들로부터 구체적인 경험과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앞서 조사한 차별사례들을 바탕으로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권 내용과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비제도적 방안들을 소개하는 목차로 구성했습니다. 법적 용어나 권리에 관한 내용을 어렵지 않게 풀어서 설명하고, 되도록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대학생 권리 체크리스트, 차별일지 작성 예시, 편의제공요청서 예시, 학생회칙 예시 등 학교생활 중 실제상황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인터뷰와 설문조사, 자료스터디, 제작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장애대학생 자기옹호워크샵"을 두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재학생 워크샵은 대학생활 경험 중 마주한 각자의 차별상황과 해결방법들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의 자기옹호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신입생 워크샵에서는 특히 선배 장애대학생들의 많은 도움으로 인해 저희가 바랐던 대로 신입생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걱정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Q.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 프로그램 진행을 학업과 병행해야 했던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약 6개월의 활동기간 중 마지막 한달을 제외하고는 학기중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준비단계에서부터 빠듯한 일정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학기 중에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각자 맡은 일을 제때에 완성하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프로그램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대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준비단계에서부터 빠듯한 일정을 고려하여 계획을 짜고 역할분담을 해야 하고, 이때 학기 중에 할 수 있는 일과 방학 중에 할 수 있는 일을 확실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자 일정이 다르고 투여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의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준비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중간점검 등을 통하여 팀원 모두가 이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프로그램 진행에 외부의 사람/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최대한 빨리 연락하여 사전에 관계를 형성해두는 것이 프로그램을 원활히 진행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Q. 본 대회를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장애대학생과 함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고민을 나누는 과정 자체가 저희가 장애인권과, 인권감수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행사를 진행할 장소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강의실 뿐만 아니라 화장실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다보니 대학 사회가 얼마나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워크샵을 진행할 때 청각장애 참가자에게 속기지원을 제공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때 시작장애학생이 읽을 수 있는 별도의 파일을 제공하는 등 당연히 필요하지만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고 실행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Q. 공모전을 준비하는 로스쿨 학우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세요.

▶ 로스쿨의 학업이 결코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공모전을 준비하다보면 분명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든 순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기획하는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시간을 내기 어려운 시기(가령 시험기간)에 각각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현명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동천공익인권활동프로그램 공모전은 팀원들과 함께 준비하는 대회라는 점에서 같이 하는 과정이 즐거울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응원한다면 로스쿨 생활 중 잊지 못할 추억과 경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

고려대 로스쿨, 국내 첫 '전문 변호사 스타트업' 키운다



고려대학교 CJ법학관 전경

고려대 로스쿨이 국내 최초로 '전문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청년변호사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을 만들어 화제다. 로스쿨이 전문 변호사 양성을 위해 변호사로 구성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이다. 고려대 로스쿨(원장 명순구)은 13일 법률가의 전문화와 적극적인 로스쿨 체제의 교육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서초동 법조타운에 법률가 창업보육 플랫폼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려대는 로스쿨 산하에 '법창의 센터(CLC·Center for Law & Creativity)'도 설립하기로 했다. CLC에는 교내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운영위원회와 융합자문위원회를 뒤 청년변호사 스타트업에 실질적인 자문을 지원하고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과의 교류를 추진할 방침이다. CLC 초대 소장은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59·사법연수원 13기) 고려대 로스쿨 초빙교수가 맡는다. 김제완(56·17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부소장을 맡았다. 고려대는 청년변호사의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위해 CLC내에 '고려정우창업보육플랫폼(KJLIP·Korea-Jungwoo Law Incubating Platform)'도 설치한다. KJLIP는 변호사 3명 내외로 구성된 6개 팀을 선정해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이들이 '벤처 로펌'을 만들 수 있도록 2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적어도 팀당 1명 이상은 고려대 학부 또는 로스쿨을 졸업해야 하고, 팀원 전원이 모두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서초동 법조타운 인근 방배동에 있는 사무실을 2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무실(약 200평)은 정유정 유증개발 회장과 정승우 유증문화재단 이사장이 무상으로 제공했다. 명 원장은 "고려대 로스쿨은 3년의 로스쿨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창의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자 노력해왔다"며 "KJLIP에서 전문성을 배양한 법률가들은 국내외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창의적 인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로스쿨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CLC와 KJLIP 개소식은 9월 13일이다.

기사출처: 법률신문 2018-08-13

리걸클리닉센터, 미추홀도서관과 "멘토플러스 어린이 로스쿨" 개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멘토로 나서 초등학생들 모의재판 열어 다양한 주제로 열띤 논쟁 벌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는 2018년 8월 17일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로스쿨관 105호 모의법정에서 미추홀도서관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이 함께하는 멘토플러스 어린이 로스쿨 모의재판을 진행하였다. 행사는 인천지역 초등학교 어린이 20명이 참가하였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형사법학회)들의 멘토로 모의재판이 진행되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원혜옥 원장의 인사말과 함께 모의재판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참가 어린이들에게 수료증 및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여하였다. 모의재판은 어린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인 절도죄를 다뤘다. 모의재판은 학생들에게 각각 판사, 검사, 변호사, 증인, 법정경위의 역할을 주고 학생들 스스로 유·무죄를 판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참여도와 리더십, 발표력을 토대로 서창휘(12·소래초 5년) 학생은 최우수상을, 박사무엘(13·석촌초 6년) 학생은 우수상을 받았다. 모든 참가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모의재판은 2013년부터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해 열리고 있다. 원혜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법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준법의식을 알려주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됐다"며 "인천 지역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적 연대 형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2018-08-17

속빙점



1. 죽음에서 깨어남

자신이 루리코를 교살한 사이시의 딸이라는 말을 듣고 모범림에서 자살을 기도했던 요코. 꺼질 듯 말듯한 생명의 등불은 다시 소생된다. 게이조의 부인 나쓰에는 자기 집 안방에서 젊은 의사 무라이와 밀회를 즐기기 위해 루리코를 밖으로 내보냈고 사이시는 루리코를 교살했다. 게이조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에 따라 친구 다카기의 고아원에 있는 사이시의 딸 요코를 입양했다.

벌써 18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응급실을 찾아온 다카키는 요코가 사이시의 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요코는 홋카이도 대학의 수재 나카가와 미쓰오가 남편이 전쟁터에 나간 하숙집 아줌마 게이코가 간통을 해 낳은 딸이었다. 다카키는 게이조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일생의 과제로 삼는다는 말을 믿고 요코를 맡겼다.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요코에게 나쓰에가 용서를 구한다. 요코가 루리코를 죽인 사이시의 딸로 알고 미워했기 때문이다.

2. 출생의 비밀과 친모 게이코

죽음에서 깨어난 요코는 게이조로부터 출생의 비밀을 듣고는 자신은 전쟁터에 나간 사람을 배신한 배신자들 사이에 태어났다고 말한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 다쓰코가 친모 게이코를 만나고 싶냐고 묻지만 요코는 거절했다. 오히려 요코는 사이시

의 딸을 만나고 싶다. 요코의 친모를 찾아 나선 것은 오빠 도루였다. 아버지의 친구 다카키로부터 요코의 친모 게이코가 미쓰이 해산물 도매상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녀를 찾아갔다. 뱃고동 소리가 들리는 부두 옆에 미쓰이 상점이 있다. 도루는 요코와 닮은 게이코의 얼굴을 보고 돌아갔다. 요코를 사랑한 기다하라는 도루와 절친이었지만 라이벌로 다시 나타났다. 게이조는 무라이와 간혹 만나는 나쓰에가 여전히 의심스럽고 루리코를 죽음으로 빠뜨린 그녀를 용서하지 못했다.

어느날 도루는 장례식장에서 검은 드레스의 여인을 보고 다시 놀랐다. 마치 톨스토이 안나 카레리나를 연상시키는 여인의 모습 속에 요코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요코의 친모 게이코였다. 도루는 게이코를 배웅해주며 호텔 커피숍에서 19살의 요코에 대해 알려줬다. 음독자살을 시도한 요코의 소식을 들은 게이코는 자신의 불륜에 죄책감을 갖고 남편 미쓰이와 요코에 대해 더욱 무거운 짐을 갖게 됐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3개월을 입원할 정도로 중상을 입은 게이코. 도루는 석간신문을 본 후 교통사고 사실을 알았고 게이코의 교통사고를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도루는 이 사실을 요코에게 알려주고 친모를 만나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았다. 방금 고아원을 방문하고 돌아온 요코는 배신자를 만날 수 없다고 박절하게 거부했다.

게이조는 고아원을 방문한 요코에게 죄의 문제에 대해 말했다. 게이조는 죄가 없다는 사람에게 어느 목사가 큰 돌을 옮긴 후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으라고 한 후 작은 조약돌을 똑같이 해보라 했더니 큰 돌은 가능했지만 조약돌은 어렵다는 고백을 듣고 죄의 진상을 보여준 예화를 들려주며 자신의 양심 속에 죄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요코에게 실토했다. 도루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게이코를 병문안 갔다. 자신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라며 사과하는 도루에게 게이코는 죽은 양심을 깨워줬다고 답했다. 둘째 아들 다쓰야가 자신과 닮은 요코를 보았다는 말에 내심 놀란 그녀. 지금 게이코는 물어뒀던 20년 전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에 놀라고 있다.

3. 홋카이도 대학의 입학, 동생 다쓰에와의 만남 그리고 용서

계모 나쓰에와 요코는 함께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둘은 화해했다. 요코를 사이시의 딸인 것으로 착각하고 증오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나쓰에. 요코는 나쓰에에게 자살을 시도해 죄송하다고 답한다.

그간 요코와 도루 그리고 기다하라는 종종 모임을 가졌다. 기다하라와 함께 나타난 여인 준코. 생기발랄하고 밝은 모습의 소녀는 도루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다. 1년 늦게 입학한 홋카이도 대학에서 요코의 학창시절이 시작된다. 클라크 회관 앞 나무 그늘아래에서 가끔 휴식을 취했다. 어느 날 한 남학생이 요코에게 다가와 말을 건다. 게이코의 막내아들 다쓰야였다. 엄마와 닮았다는 다쓰야의 말에 요코는 순간 놀란다. ‘아차. 친모의 아들이구나.’ 요코는 자신의 존재를 침범 당한다는 두려움 속에 동생 다쓰야에게 자신의 존재를 숨긴다. 그리고 둘은 자주 만남을 갖는다. 이를 시기하는 기다하라. 무엇보다 가까워지는 둘을 두려워 한 것은 친모 게이코와 게이조였다.



저자소개



박상홍 변호사
동아대학교 법무팀장

동아대 로스쿨 재학시절 편집장을 맡은 일을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한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신체특성 때문에 변호사로서의 영업은 쟁쟁할지 모른다. 그러나 글쓰는 일과 쉽게 설명하는 법률이야기를 일반인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가장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정차 나의 꿈은 법률이야기꾼이 되는 것이다.

“저는 사이시의 딸이에요.
 저를 마음대로 처단해주세요.
 저는 아버지의 죄를 빌기 위해
 살아왔으니까요.”
 교회를 찾아간 게이조는
 준코의 모습을 통해
 회개했다.
 의로운 바리새인과 불의한
 세리 중 용서받은 자는
 세리였다는 성경구절을
 들었다.
 그리고 양로원에 봉사하는
 젊은 여청년으로부터
 자신의 봉사가 양로원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사랑했다는
 고백을 들으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 가운데에서도 어느새 요코에게 가장 친한 친구는 준코가 되었다. 자신의 음독사실을 고백하고 준코는 귀담아 듣는다. 둘 사이에 나타난 도루에게 준코가 밝은 얼굴을 비춘다. 준코는 밝고 생기발랄한 여성이었다. 요코는 미술 동아리 흑백합회의 정기모임을 매주 화요일 오후 클라크 회관 1호 집회실에서 가졌다. 공격적이고 직선적인 성격의 다쓰야가 같은 장소에 나타나 요코에게 말을 건다. 사소한 일상생활과 좋아하는 음식과 취미를 사사건건 들은 묻고 답하는 연인과 같은 사이로 발전하는데 요코는 동생 다쓰야를 더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를 모르는 다쓰야는 자신을 경계하는 요코를 이해할 수 없다. 늦은 밤 하숙집 방문을 요청하는 다쓰야를 내친 요코. 잠시 냉각기를 갖게 된다. 다쓰야와 형 기요시는 요코에게 사과를 전하기 위해 하숙집을 방문하고 요코는 생모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출생에 대해 더욱 원망하게 된다.

점점 가까워지는 둘의 만남 속에 게이조와 게이코의 만남이 이뤄지는데, 게이조는 그녀를 동정한다. 전쟁터에 나간 남편 그리고 홀로 남겨진 게이코와 하숙생 나카가와 사이의 잘못. 그는 게이조의 실수를 이해할 수 있었다. 반면 나쓰에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은 어떤가. 요코는 도루와 기다하라 그리고 준코와 또 다른 만남을 가진다. 시코스 호수를 걷는 네 사람의 대화 중 사이시의 딸에 대한 화제가 떠오르는데, 꽃창포 화원의 펼쳐진 아름다움에 탄성을 지르던 준코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도루를 사랑하는 준코. 그녀가 요코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내용은 자신은 사이시의 딸이며 네 살때 입양되어 훌륭한 부모님 아래 양육되었는데 한때 살인자 아버지를 저주하며 방황하다 교회를 다니면서 속죄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요코가 건네준 편지를 본 게이조는 순간 나쓰에와 자신의 죄를 보게 됐다. 밀회 때문에 루리코를 죽음으로 몬 나쓰에, 나쓰에와 무라이에 대한 증오로 요코를 자살로 몰고 간 게이조. 부부는 죄인이었다. 준

코의 편지를 본 요코는 어머웠는가. 살인범의 딸 준코는 속죄를 통해 아버지를 용서했다. 그러나 자신은 간통자 나카가와 미쓰오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으며 어머니 게이코를 용서할 수 없다.

준코와 요코 그리고 나쓰에와 게이조 네 사람은 모범립 숲을 거닌다. 나쓰에의 손목을 잡고 다정하게 독일가문비 숲을 지나가던 준코. 자갈밭을 지나 강변 앞에 들국화를 내려놓는다. 나쓰에는 루리코를 떠올리며 사이시를 원망하는 말을 한다. 순간 준코가 기절하는데, 깨어난 준코는 꿇어 엎드려 나쓰에에게 용서를 구했다. “저는 사이시의 딸이에요. 저를 마음대로 처단해주세요. 저는 아버지의 죄를 빌기 위해 살아왔으니까요.” 교회를 찾아간 게이조는 준코의 모습을 통해 회개했다. 의로운 바리새인과 불의한 세리 중 용서받은 자는 세리였다는 성경구절을 들었다. 그리고 양로원에 봉사하는 젊은 여청년으로부터 자신의 봉사가 양로원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사랑했다는 고백을 들으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속 빙점

저자: 미우라 아야코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빙점.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용서하는 마음과 새로운 삶의 소망. <빙점>은 기독교의 사상을 중심으로 인간의 원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저자는 작품 속의 주인공 공 요코의 고백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빙점을, <속 빙점>을 통해서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용서하는 마음과 새롭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4. 추적 그리고 빙점

도루와 기다하라 사이에 갈등하는 요코. 요코를 쫓아오는 다쓰야. 다쓰야는 요코를 차에 태워 높은 산과 계곡을 건너 눈 쌓인 도로를 숨 쉬지 못할 정도로 질주한다. 목적지는 엄마 게이코가 있는 집이다. 다쓰야는 엄마와 요코의 관계를 확인해야만 했다. 기다하라는 끊임없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도망가는 다쓰야의 차를 따라간다. 다쓰야의 차를 따라잡은 기다하라가 난폭운전을 하는 그에게 소리치며 요코를 내려달라고 한다. 거절하는 다쓰야는 엑셀레이터를 밟고 차창에 손을 얹은 기다하라의 오른 다리가 차에 들어가 버린다. 수술대에 오른 기다하라의 오른쪽 다리는 잘려졌고, 요코는 그를 간호한다. 한통의 편지가 쓰치구치 게이조의 가정에 배달된다. 게이코의 남편 미쓰이의 편지였다. 미쓰이씨는 참전 중 노인과 어린아이에게 행한 잔인한 학살을 고백했다. 그는 전쟁 중 동물로 타락한 인간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전쟁 중 삿포로 처가에서 나가가와와 간통했다. 낙태하지 않고 한 생명을 낳은 사실을 알고 자신의 죄가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는 미쓰이씨. 그는 아내의 과실을 눈감아주었다. 미쓰이의 용서는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다. 그리고 게이코가 기다하라의 병실을 찾아갔다. 그를 간호하는 요코에게 게이코가 말을 건다. “요코 용서해줘” 병실을 나가버리는 요코. 순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쳐라’는 문구가 떠오른다. 때마침 노을 앞 유빙이 한 방울의 피처럼 붉게 물들었다. 요코는 인간의 의표를 찌르는 자연의 모습에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피. 게이코를 향해 수화기를 들었다. 잠시 다짐한다. ‘어머니 죄송해요’ 게이코의 목소리를 기다린다.

5. 결론

‘속빙점’을 읽으며 만약 작가가 ‘빙점’으로 소설을 마무리하려 했다면 작품은 미완으로 남았으리라고 확신하게 됐다. 첫 작품은 사건의 시작과 근원적인 갈등에 대해 어떤 실마리도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죽음에서 깨어난 요코가 또 다른 갈등의 문으로 들어간 속 빙점. 준코의 회개와 미쓰이씨의 편지가 용서로 작품을 종결짓는다. 짧은 순간 행한 죄. 그러나 용서를 향한 길은 너무나 멀었다. 작품은 인간의 원죄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전쟁의 참상에 대한 고발을 함축하고 있다. 대작을 짧은 글로 요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독자들이 머리를 식히기 위해 본 작품을 읽을 기회를 가진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갖게 될 것이다. **창**

지난여름의 폭염은 재난으로 불렀을 만큼 뜨겁고 강렬했다. 그래서인지 해운대 백사장보다는 극장, 미술관 등 시원한 공간들이 새로운 피서지로 각광받았는데, 그 여파로 뛰어난 작품들이 속속들이 오픈하고 있다.



온 동네가 바라는 첫사랑이 시작된다! 연극 장수상회

지난 2016년 동명의 영화를 무대로 옮겨온 연극 <장수상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명품 연극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평생 독심을 지키며 살아온 까칠한 노인사 '김성철' 과 소녀 같은 꽃집 여인 '임금님'의 사랑 이야기는 연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미국 LA투어를 성공시켰고, 국내에서도 30개 도시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성철 역에는 '꽃보다 할배'의 히어로 이순재, 신구가 출연을 확정되었으며, 금님 역에는 따뜻한 연기를 보여주는 손숙, 박정수가 캐스팅되어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연장소 대학로 유니플렉스 1관
공연기간 2018.09.07.(금) ~ 2018.10.09.(화)
티켓가격 VIP석_66,000원, R석_55,000원
홈페이지 <http://ticket.interpark.com/>

Play-acting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되는 신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라이선스뮤지컬로 개막을 할 때마다 흥행 신화를 불러일으킨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가 11월 재공연에 오른다. <지킬 앤 하이드>는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 전개와 친숙한 음악, 몰입도 높은 무대 연출로 2004년 초연 이후 매 공연 매 회차마다 평균 객석점유율 95%를 기록한 흥행 뮤지컬이다. 영국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박사와 하이드씨'의 이상한 사건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이 작가 레슬리 브리커스, 연출가 스티브 쿠덴과 협력해 1997년 브로드웨이에서 첫 선을 보였다. 2018년 공연에는 배우 조승우, 홍광호, 박은태가 '지킬/하이드' 역에, 지킬을 사랑하는 '루시' 역에는 윤공주, 아이비, 해나가 캐스팅되었다.

공연장소 사뮈엘시어터
공연기간 2018.11.13.(화) ~ 2019.05.19.(일)
티켓가격 VIP석_140,000원, R석_120,000원
홈페이지 www.odmusical.com



Musical

사랑과 낭만의 화가 르누아르 르누아르 여인의 향기展

인상파 화가들 가운데 가장 밝고 다채로운 색채를 표현한 화가 르누아르. 그의 눈부신 색채와 생동감 넘치는 묘사는 미술사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한다. 특히 여성이 발산하는 매력과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을 능숙하게 묘사하여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르누아르: 여인의 향기展>은 캔버스 위의 1차원적 전시가 아닌 VR과 인터랙티브를 활용한 컨버전스 아트전이다. 관객들이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으로만 그치지 않고 '작품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해,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르누아르의 초기 습작부터, 자화상, 드로잉을 포함해 르누아르가 꿈꿨던 풍경화와 여성들의 모습 등 그동안 만나볼 수 없었던 작품들을 한곳에서 볼 수 있다.

전시장소 본다빈치뮤지엄 서울숲 갤러리아포레
전시기간 2017.05.12.(토) ~ 2018.10.31.(수)
티켓가격 12,000원
홈페이지 <http://ticket.interpark.com/>



Exhibition

나는 코코 카피탄, 오늘을 살아가는 너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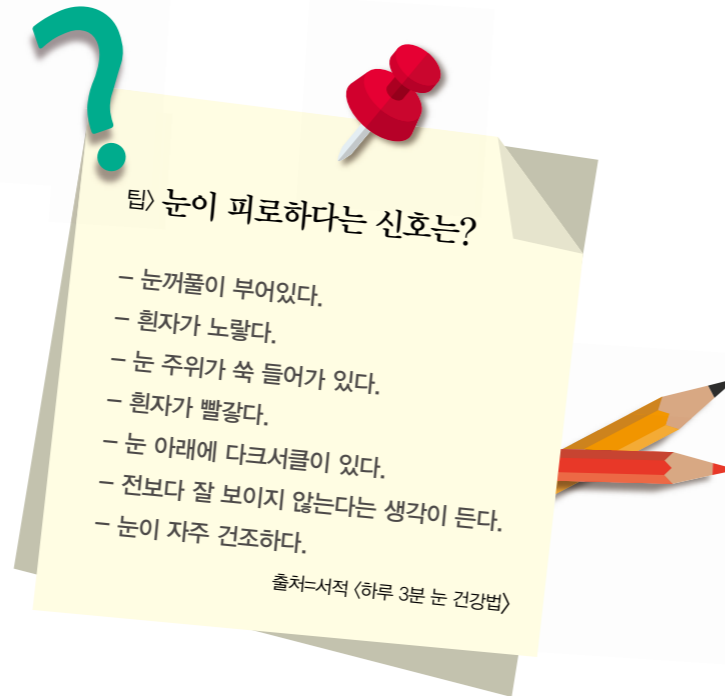
명품 브랜드 구찌와의 협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 아트 스타 코코 카피탄(Coco Capitan) 전시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진행 중이다. 코코 카피탄은 밀레니엄 세대의 성장 과정에서 한 번쯤은 겪었거나 현재 겪고있는 여러 감정을 솔직하게 담은 글귀와 정형화되지 않은 색감과 구도의 사진으로 순수 예술 영역뿐만 아니라 패션 등 상업 영역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나는 코코 카피탄, 오늘을 살아가는 너에게(Is it tomorrow yet?)>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사진, 페인팅, 핸드라이팅, 영상, 설치 등 총 150여점의 작품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공연장소 대림미술관
공연기간 2018.08.02.(목) ~ 2019.01.27.(일)
티켓가격 8,000원
홈페이지 <http://www.daelimmuseum.org/>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혹사당하는 눈, 눈에게도 휴식 시간을 주세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시달리는 눈. 사람들은 휴식을 취할 때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보는 경우가 많아 눈은 잠시도 쉴 수 없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때문에 현대인들은 어느 때보다 눈이 피로하다.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4%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성인 역시 96%로 1위이다. (미국 리서치기관 퓨리서치센터) 눈 피로가 쌓일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눈이 피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혹사 당하는 눈은 조금만 관리해도 좋아질 수 있다.



스마트폰에 혹사당한 눈, 피로·안구건조증 불러와

눈의 피로가 지속될 때 생기기 쉬운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흔한 것이 안구건조증이다. 안구건조증이 생기면 눈이 뻑뻑하고, 시리고, 아프다. 눈에 모래알이 들어간 듯한 이물감이 들고, 눈곱이 자주 끼고, 충혈되고, 심한 경우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들어진다. 일시적으로 시야가 흐려지면서 시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두통이나 어깨결림, 전신 피로로 이어지기도 한다. 안구건조증을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 단순히 증상이 아니라 최근 안과학계에서는 안구 '질환'으로 봐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 안구건조증은 실제 눈물의 양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눈꺼풀 주변의 기름샘에 염증이 생기는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다. 초기에는 안구 건조, 이물감, 따가운 증상에 그치지만 심하면 각막에 상처가 생기거나 시력이 떨어질 위험도 있다.

스마트폰이 근시 불러와

스마트폰을 장시간에 걸쳐서 보면 근시가 생길 수 있다. 최근 근시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사용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글 _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숙명여대 졸업
현 헬스조선 취재팀장/ 기자
현 TV조선 <내몸 사용설명서> 고정 패널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단(블로그)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폐암학회 언론인상 수상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016년 오스트레일리아 연구팀이 '안과(Ophthalmology)'라는 의학 잡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50년에는 세계 근시 인구가 전 인류의 49.8%나 되고, 그 중 고도근시로 실명하는 인구가 9.8%나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00년 근시 유병률이 22.9%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급격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의 청색광, 망막 손상시켜

최근에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청색광(blue light)이 눈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청색광은 가시광선 중 하나로, 380~480nm의 파장을 갖는 빛이다. 가시광선 중에서 짧은 파장과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푸른 빛을 띠고 있다. 청색광은 태양빛에도 존재하는데, 낮시간 동안 태양을 통해서 받게 되는 청색광은 생체리듬을 유지시켜주며 집중도를 높여주고 기억력과 인지능력을 향상시켜준다. 하지만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 TV 등에서 나오는 청색광에 오래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교란돼 생활리듬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 안구건조증, 눈의 피로, 통증 등이 생긴다.

눈 피로 푸는 생활습관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혹사당한 눈, 생활 속에서 회복시키는 법을 실천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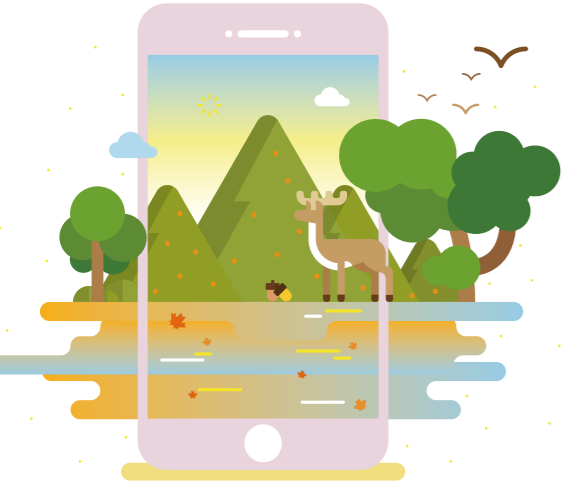


▷ 눈을 수시로 깜박이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안구건조증을 유발하는 이유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 등 근거리에서 화면을 보게 되면 평상시 보다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최대 5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눈을 깜빡일 때 눈물이 안구 표면을 덮어주는데 눈을 덜 깜빡여서 안구 표면이 마르는 것이다. 최소 4초에 1번 즉 1분에 15번씩은 눈을 깜빡여보자.

▷ 1시간 작업 후에 5~10분간 쉬는 습관을 갖기

일정 거리에 있는 것을 장시간 보게 되면 눈 근육이 굳어진다. 그 상태가 반복되면 눈 피로나 통증 뿐만 아니라 어깨나 목 결림 등이 나타난다. 1시간 작업 후 5~10분 간 휴식시간을 갖자. 눈을 감는 것이 가장 좋다. 눈을 감으면 굳어있던 목과 어깨의 긴장도 같이 풀린다. 먼 곳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눈 근육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다.



▷휴식 시간에는 스마트폰 보지 않기

하루일과 중 휴식 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자. 요즘에는 휴식시간이 나 잠자리에 들어서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눈도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

▷숙면 취하기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취하면 가장 불편한 곳이 눈이다. 눈의 피로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숙면이다. 숙면을 취하면 자율신경 균형이 맞춰지고 특히 몸이 휴식할 때 기능하는 부교감 신경을 작동시켜 눈의 피로 회복을 돕는다.

▷눈 피로 풀어주는 운동하기

눈을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으로 천천히 돌리고 응시하는 것만으로 눈 근육을 이완시키고 긴장을 풀 수 있다. 눈에 힘을 주고 뜨기와 감기를 반복한다. 눈 근육을 단련시키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눈 건강에 도움 되는 영양소 챙겨야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도 있다. 이런 영양소는 식품을 통해서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영양제를 통해 매일 보충해도 좋다.

먼저 천연 카로티노이드 성분인 아스타잔틴은 강력한 항산화, 항염 작용을 한다. 망막의 혈류를 개선하고, 수정체의 굴절을 조절하는 모양체 근육(초점 조절에 관련된 근육)에 더 많은 혈액이 도달하게 한다. 눈의 피로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 26명을 대상으로 하루 5mg의 아스타잔틴을 한 달간 섭취하도록 한 결과, 눈의 피로가 54% 감소했으며 눈의 초점 조절 능력이 개선됐다. 아스타잔틴은 연어, 새우, 송어 등과 같은 해산물에 많이 들었다.

루테인은 황반 색소의 원료로 망막 속 루테인이 부족하면 망막 질환인 황반 변성 위험이 있다. 눈의 루테인 함량은 보통 25세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60세가 되면 절반 이하로 감소하므로, 나이가 들수록 루테인이 든 식품(케일, 브로콜리, 달걀노른자)을 풍부하게 섭취해야 한다.

오메가3지방산 중 DHA는 망막 조직의 주성분으로 눈물막을 튼튼하게 한다. EPA는 염증성 물질(PGE2)을 감소시켜 염증을 억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EPA와 DHA에 대해 '건조한 눈을 개선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능성을 인정한바 있다. 오메가3지방산은 연어·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었다.

비타민A는 로돕신(빛 감지 단백질)이 합성되는데 관여한다. 비타민A가 부족하면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잘 못보는 야맹증이 발생한다. 비타민A는 당근,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에 풍부하다. **창**

▷모니터 거리와 높이를 적절히

컴퓨터 모니터는 눈에서 50~70cm 떨어지는 것이 좋다. 모니터는 눈높이보다 약간 낮거나 비슷해야 눈을 크게 뜨지 않아도 돼 안구건조증 예방에 좋다. 스마트폰도 가급적 눈 높이와 같은 높이로 들여야 한다. 눈은 물론 목이나 허리 건강에도 좋다.

▷피로한 눈에 온찜질

안과 전문의들은 아침저녁으로 눈에 온찜질하는 것을 권장한다. 따뜻한 수건을 천천히 눈에 얹으면 혈액순환이 촉진 돼 산소와 영양소가 눈으로 운반되기 쉽다. 눈에 기름을 분비해 눈물이 과도하게 증발하지 못하게 돕는 '마이봄샘' 기능을 원활히 해 안구건조증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따뜻한 수건을 눈에 10분간 올려두면 된다. 단 눈에 염증이 있는 경우는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다. 눈에 자외선을 너무 쬐었을 때, 눈이 충혈됐을 때, 눈이 부었을 때 찬 수건을 눈에 얹으면 염증이 가라앉는다. 눈이 가려울 때에도 효과적이다.

▷눈 자외선 차단하기

피부에 선크림을 바르는 것처럼 눈도 선글라스로 자외선을 차단해야 한다. 자외선은 백내장, 황반변성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외출 시 선글라스를 쓰는 습관을 들이자.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경우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것이 있으므로 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LAWSCHOOL NEWS

사법연수원 간담회 개최



지난 8월 21일(화) 사법연수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사법연수원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사법연수원측에서는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성수제 수석교수를 비롯해 법전원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교수 5인(오용규, 고법석, 이경호, 장우영, 권현영)이 참석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측에서는 이형규 이사장을 포함해 25개교 법전원장단이 참석했다. 사법연수원과 법전원협의회는 법전원의 상호 협력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들의 출강 시 적극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임 원장



최희수 원장
- 강원대학교 법전원
전 공 : 헌법
lawchs@kangwon.ac.kr



이승호 원장
- 건국대학교 법전원
전 공 : 형법
snagukbo@hanmail.net



배대현 원장
- 경북대학교 법전원
전 공 : 지적재산권법
somang@knu.ac.kr



권재열 원장
- 경희대학교 법전원
전 공 : 상법
jykwon@khu.ac.kr



장승화 원장
- 서울대학교 법전원
전 공 : 국제거래법
changsw@snu.ac.kr



김대환 원장
- 서울시립대학교 법전원
전 공 : 헌법
daiwhan@uos.ac.kr



이동형 원장
- 영남대학교 법전원
전 공 : 민법
hyong@yemail.ac.kr



김덕중 원장
- 원광대학교 법전원
전 공 : 민사법
hamakdj@wku.ac.kr



오종근 원장
- 이화여자대학교 법전원
전 공 : 민법
jkoh@ewha.ac.kr

제2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



- 일 시 : 2018. 11. 9.(금) 09:30~18:00
- 장 소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 대 상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본선진출 12개팀)
- 팀별 참가인원 수 : 2~3명
- 방 법 : 추첨을 통해 군검사 6팀, 변호인 6팀 편성 / 자유변론경연 방법

1. 대본공지 및 신청서 등 접수: 2018. 9. 10.(월) ~ 10. 3.(수)
가: 대본공지: 고등군사법원 홈페이지(www.hcaf.mil.kr)
나: 신청서, 군검사의견서, 변론요지서 - 이메일(blessgim@mnd.go.kr) 접수
2. 본선 진출팀 발표: 2018. 10. 26.(금) 12개팀, 개별 및 홈페이지 공지
3. 시상내역

구 분	상 장	상 금
최우수상	국방부장관상	200만 원
	대한변호사협회장상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상	각 100만 원
	육·해·공군 참모총장상	각 100만 원
	고등군사법원장상(6개팀)	
최우수 변론상(개인)	교육부장관상	50만 원

4. 문 의 : 02-748-1441



※ 본 문항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2차적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 문항 출처: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 「국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회의장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이 없음에도 단독으로 특정 상임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② 국회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 ③ 소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한 경우 연석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 ④ 국회의원이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형사특별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이 단독이나 선택적으로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면 지방법원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도 약식명령청구의 대상이 된다.
- ② 약식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죄나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있다.
- ③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④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할 수 있다.
- ⑤ 즉결심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 있고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3. 甲은 금전 10억 원과 고가의 미술품 5점을 乙에게 맡기기로 하는 민법상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미술품에 대해서는 2년 후에 반환하기로 하고 乙에게 매월 1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금전에 대해서는 보수나 반환시기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미술품에 대한 임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② 乙은 금전에 대한 임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③ 乙이 미술품의 보관과 관련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의 잘못으로 미술품이 모두 소실되어 乙에게 보낼 수 없게 되었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약정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甲이 乙에게 맡기기로 한 위 금전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경우, 이를 은닉하기 위하여 甲과 乙이 체결한 위 임차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상군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송남대학교



승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